

제42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7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 | | | |
|------------------------------|-------|---|
|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 | 1 |
|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 | | 1 |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업무 적합성 그리고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현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인사 검증이라는 취지에 충실하시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 발언 시에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

(11시13분)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공직후보자 조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과 복합위기, 이로 인해 많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40여 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면서 비교적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미국대사관의 경제과장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소통의 최前线에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FTA 교섭과 2010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 경험이 지내고 보니 사실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안보와 통상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 통상 환경은 전례 없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 중이며 기술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도 여전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러·북 군사 밀착과 북핵 고도화로 안보 여건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힍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게 외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주권정부의 외교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앞으로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관세·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제, 군사, 안보, 첨단과학기술

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 방위산업을 포함한 군사력, 문화적 창의성, 민주적 역동성을 미국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원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도 한층 공공히 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견고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여 상호 국익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아내고 이행하며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조를 위해 일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도 조기에 개최되어 3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교류를 재개하고 한중·한일중 협력의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해서 한중 양국에 실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을 민간기업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서해를 비롯한 우리 주권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아 가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여건이 만들어지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를 주시하면서 정부 간 소통의 범위와 수준을 조절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와 경제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외공관은 해외발 경제안보 리스크를 먼저 포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제도 강화하겠습니다. AI, 퀸텀, 우주,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러의 건설적 역할도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재외국민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편의를 증진하면서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로 출국하시는 우리 국민이 연간 3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외국에 방문하고 체류하실 수 있도록 여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해외

위난 시 재외국민 보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국가와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700만 재외동포가 모국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전략형 선도국가로 자리매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안보 위협과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한편 AI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에서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 입장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전략적 지평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사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가운데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외교의 주체로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대외원조자금이 투명하고 합목적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ODA 체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 구상 달성을 위한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교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재외공관이 K-아이니셔티브 실현과 K-컬처 확산의 첨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신장하고 공공외교, 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교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지속가능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포함한 외교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외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긴밀히 협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의 일원이라는 각오로 위원님들께 가장 자주 보고하고 소통하는 국무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초당적 외교정책만이 지속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당적 외교정책은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우리 외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성찰해 온 저 개인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오늘 장관후보자로서 올바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현절 행사 때문에 청문회 시작이 약 1시간가량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형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자료 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새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지는데 외교부의 자세는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 못 들어가는 국가, 여행금지국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행금지국가인데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특별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방문한 숫자가 18건밖에 안 됩니다. 공무 방문이 열네 차례고요 기업 방문이 네 차례입니다. 그런데 딱 4차 지원 때 무려 800여 차례를 갑니다. 공무가 299고요 기업이 488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 언론에도 나왔듯이 지금 삼부토건 추가조작이나 심지어 파병 거기에다 불법 군사장비 제공 이런 내역들을, 모든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가 이걸 왜 안 내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방위비의 분담에 관해서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방부 사안이지만 외교부가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매년 거의 9000억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고 쌓여 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 발생 내용이나 불용 처리 상황을 외교부에 물어보니 외교부는 관련 부처인 국방부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협상의 당사자임에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꾼 걸 다 아실 겁니다.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외교부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후화된 국유 재산을 최소한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긴요한 부분에 보수를 실시했을 걸로 보임’. 이렇게 무책임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장관후보자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3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는 그런 질의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외교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베테랑 외교관으로 열심히 해 오신 것을 잘압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마치 우리가 당연히 미국한테 줘야 하는 것이고 매년 올라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깜깜이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님, 원래 우리에게 SOFA라는 게 있지요?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신이 한국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준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미국이 특별히 91년부터 SMA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특별협정입니다. 저 SMA의 S는 스페셜(special)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저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그다음에 연합방위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인데 우리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연간 1조 500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준형 위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불, 지금 환율로 13조 7000억입니다. 저기에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00억 원 정도가 매년 못 쓰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13조 7000억은 사용도 못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SOFA와 현재의 법상에서 설사 우리가 지불하기로 작정을 해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좀 기술적인 사안으로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히……

전 세계에서 이 SMA를 주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준형 위원 몇 개국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준형 위원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여기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요. 특히 일본은 매년 우리가 예산 하듯이 먼저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총액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시지요?

지금도 굉장히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만 5000명이라는 잘못된 주한미군 숫자를 얘기하며 지금 10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이런 틀린 팩트에 대해서 외교부가, 장관이 되시면 바로 서한이라도 보내서 이 부분을 교정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두 번째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을 인천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 줄 걱정도 되지만 또 반면에 보면, 실제로 지금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이 자가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대사에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보시면 서울시에 초청왔다가 무산됐고요.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데……

어제 서울대 갔다가 또 무산돼서 밖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차이나 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펴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사법 대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 보십시오.

이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애니 챈, 그다음에 전 공화당 의원 미셸 스틸, 그다음에 현재 하원의원이신 영 김 그리고 고든 창, 제가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한국 선거, 현법을 부정합니다.

오늘 제현절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주한미국대사로 부임을 하면 그때 가서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외교적 결투의 시기가 되기 전에 요로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한국에서 보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국대사로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우리 의사를 전하는 것은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이것을 이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백악관이 축하 성명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논평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논평 중에 처음에는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공정한 선거에서 이긴 것을 축하한다고 해놓고 후반부에 뭐라고 했나 하면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게 축하 메시지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계다가 마가(MAGA)가 지금 사조직처럼, 전국 조직처럼 있는 것은 아시지요, 마가 조직이? 거기의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브 배넌은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 기억 속에, 또는 이것을 갖고 있다면 주한미국대사를 저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대비책을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절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중국 전승절 참여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지요. 9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초청하고자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석 요청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계획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우선 제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전승절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전승절이 무엇을 축하하는 행사인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안철수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중국이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이겨냈다는 그런 것을,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안철수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참석 수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그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 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전승절에 참여하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생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미동맹 기조에 혼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실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승절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북핵 억제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치적·외교적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들의 교훈을 이렇게 되짚어 볼 때 이번 80주년 전승절에 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잘 고려해서 건의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다음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알박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2000년에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

는 곳, 그러니까 PMZ라고 하지요.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자원을 채취하거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단지 공동조업만 가능한 그것이 양국이 맺었던 협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이 연어양식시설이라고 구조물인 선란 1호, 선란 2호 설치하고 그리고 또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가로 100m, 세로 80m의 관리시설 플랫폼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 2월에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가 현장 확인 차 접근하는 것조차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협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협정의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공항 설치하고 해양주권 주장하고 결국은 주변국과 충돌을 야기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든지 군사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정말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사실 외교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략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미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권의 수호가 절대적인 안보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계속 퇴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유사한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거지요. 그런 방법들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조현 후보자님, 지난 40여 년 외교부 1·2차관, 유엔대사, 아마 경제뿐만 아니라 정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또 양자·다자 외교에 아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환경이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아마 이걸 타개해 나가는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최근 한미관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과제가 관세협정이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미 지금도 자동차부품 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관세는 적용되고 있고 품목별 관세를 이제 8월 1일, 앞으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미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협상하라 이렇게 지금 통보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협상이 이 짧은 기간에 제대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단키는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도 자동차나 철강 같은 산업에는 상당한 피해가 작용되고 있고 아마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EU 주요 국가들도 똑같이 지금 서면통보를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이용선 위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충격도 우리 못지않게 크고 세계 다자 안보, 다자 무역질서 전체가 근본적으로 아마 충격을, 전환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대응들이 대체로, 일부 협상도 있습니다만 이미 보복, 거부할 뿐 아니라 보복까지 천명하면서 대응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일부에서는……

트럼프 'TACO'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이용선 위원** 또 아마 이게 협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뭐랄까 접근 아니냐, 그래서 꼭 2주 내로 시간에 쫓겨서 합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많던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상당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이시네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우리가 가진 강점 또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또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간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원원의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미 다 확인된 바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관세 기준, 근거가 단순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한 비합리적이고 정치적 산식에 기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설득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고.

최근에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미국을 다녀와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해서 통상·투자·구매 그리고 안보까지 패키지 딜을, 패키지 접근을 하는 것을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아마 시한에 쫓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요구가 분명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서 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즉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 협상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해 왔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시장 개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개방의 핵심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 주로 농축산물, 쇠고기·쌀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관세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제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농축산물 같은 것을 희생하는 방식은 상당히 뭐랄까요 경계해야 될 핵심 접근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외교·안보 문제, 즉 방위비나 국방비 문제와 통상산업의 관세 문제는 같이 엮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패키지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특히 한국의 어려운 산업 분야에 대한 고려, 배려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경제안보, 즉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의 검토도 안 해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16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임 시에 일어난 참사가 아니지만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정권과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난 3년 동안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이재명 정부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당한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이 12·3 비상계엄의 밤에 온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던 국민들 또 이제는 내란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언론이 관계가 마냥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듣기 테스트를 하게 한 윤석열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그리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한정애 위원 ‘바이든-날리면’의 발언 당사자는 당시 외교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이어서 군이 정정보도 소송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았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한정애 위원 그런데 외교부가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팔 비틀려서 대리소송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한정애 위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을 보시면요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유관기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유관기관은 대통령실이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대리한 최태형 변호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잘 모릅니다.

○한정애 위원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정족수 미달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무효화시킨 변호사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은적 성격으로 선임하게, ‘이곳을 선임해라’라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한 지침,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규를 보면 외교부장관은 소송 위임 시에 우선적으로는 정부법무공단을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예외 사유를 쭉 이렇게 보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관기관의 추천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심 수임료가 363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사건 수임료가 총 2000만 원을 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외교부 소송비용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외교부가 유일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 선임뿐 아니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역대 최대의 금액입니다. 1심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5년간 외교부 수임료 내역 중에 최고액입니다. 쭉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보수 800만 원과 사례금을 포함해서 최대 1200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세금을 대통령실을 대리해서 쓰면서 이렇게 훈령까지 어겨 가면서 막 써도 되는 것인가요? 좀 판단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매우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문회를 통과해서 외교부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요 감정불가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인 외교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발언으로 해서 외교부가 입은 손해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감정불가인데 어떻게 저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저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1심 판결은 무엇을 위한 판결이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만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징계 조치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간에 윤석열 정권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헌법상 권리라고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었는데 실제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같은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과 언론인에게는 징계 등 가혹한 제재를 일관했습니다.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MBC를 비롯한 언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요. 대국민들에게도 이런 것으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수장이 되신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지금 글로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외교는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잘못된 길을 갔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또 내란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의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에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다행히 최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통상이나 또 경제안보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가진 후보자께서 내정이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시면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하고 싶은데요. 미국인 모스 탠—리버티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이 사람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백하게 밝혀진 그런 내용을 유포하고 또 우리 대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까지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에도 개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 법 규정을 넘어서는 그런 행

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법무부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어느 경우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듯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사실 걱정되는 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외교부에서 명백하게 대책을 세워서 엄격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입장을 전달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전을 시한으로 생각하고 빨리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후보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한에 쫓겨서 협상을 하게 되면 특히 그 시한에 종속됐다고 보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한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설정한 것이고 이미 또 한 번 7월 8일에서 8월 1일로 조정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 시한에 맞춰서 우리가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협상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도 보고 또 미국 내의, 미국 정부 안에서의 논의 동향도 보아 가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기원 위원** 사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었고 그 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굉장히 맞춰 주는 듯한 그런 언행으로 소위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이 잘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이 일본을 많이 공격하고 또 이시바 총리도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좀 대립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사이에도 입장이 많이 바뀌잖아요, 실제로 조치도 많이 바꿨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앞장서서 또는 빠르게 시한에 쫓겨서 협상을 타결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패키지 딜 얘기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통상 문제를 책임지는 미국 USTR은 통상 이슈와 안보나 다른 이슈는 별개다,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통상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무슨 구매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미국을 만족시킨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통상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훈령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홍기원 위원** 사실 통상 협상은요 원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홍기원 위원** 그래야 우리나라 대표단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원 딜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만족시키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또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받아 내고 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제1기 트럼프 때 한미 간에 제일 중요한 통상 현안은 한미 FTA 재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도 만족했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고 상호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먼저 우리 후보님께 외교부를 책임질 직책을 맡는 데 오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감사합니다.

○**인요한 위원** 여야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매력을 느끼는 것은 북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대한민국 실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없고 오히려 우리 상대는 트럼프, 외국, 북한, 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놓여 있는 시점에 후보자께서 지금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같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역 압력 받고 있지요, 남북관계가 있지요, 러시아 전쟁이 있지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때 오셨는데 대통령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걸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후보님 집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정책을 물어 가겠습니다.

전작권 환수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받

으려면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당연히 언젠가는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신지, 많은 준비와 철저해야 되고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하고 같은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우선 과분한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몇 가지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군의 역량 그리고 또 한미 연합태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그 시기를 확정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트럼프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 장관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실익을 따지려면 혼란을 조성해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더 공격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미국 민주당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니고—바이든 전에 또 오바마, 의학 용어로 하면 우리가 병이 심하지 않으면 병을 관리하는 데 선한 방치라는 말이 있어요, 의학 용어가. 그런데 악성 핵 문제를 우리가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민주당에서 사실 책임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핵 문제가 북쪽에, 결국 보유국이 돼 버렸고. 이것에 대해서도 단호한 또 우리의 중장기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도에 러시아가 불참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유엔에서 통과돼서 미군은 물론이고 NATO 군대가 왔는데,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NATO에 가지 않은 것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싸운 우리 외삼촌이 늘 저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군사들이 인해 전술을 당하고 나서 여기서 무슨 전쟁을 꼭 해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미국에서는 18세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인데 16세·17세도 나이를 속이고 많이 왔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ATO 국가의 모임에 안 가는 것은, 그때 NATO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K-4도 훌륭하고 탱크도 미국 탱크보다 이상 훌륭한데, 8조인가 폴란드가 우리 물건을 많이 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뭐랄까요 판매전략을 좀 놓친 것 같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돈을 국방에 5%까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중국의 전승절은 아까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이 정확히 표현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승리입니다. 승리가 포함된 잔치입니다. 그래서 깊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군은요, 제가 33년 동안 미군들을 진료하고 봐주고 그랬는데 미군 장성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사적으로 의사로서 나눴는데 미군은 한마디로 한국이 주둔하는 것이 불편해지면 철수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남겨 두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과 기획을 하고 계신지—미국을 상대하는 데—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여야가 다 합쳐서 미국의 도전을 우리가 이겨 내서 대

한민국의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좀 부탁합니다.

어떤 전략계획을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숨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검토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인도대사로 근무할 때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에 수출하도록 협조해서 그걸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위산업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국을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서로 어떻게 원원의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전략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또 사안에 관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외교정책, 즉 여야 합치에 기반한 좋은 외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아마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약간 이슈가 됐던 것에 대한 입장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17년, 18년 평창올림픽 해서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었는데 18년 이후에 급격히 나빠져서 단절되는 상황이 한 3년 갔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북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으로 한 것이 그 원인이다.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는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에 외교부차관이셨으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

제가 됐다 이렇게 한 건데, 당시 외교부차관이셨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김기웅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 그건 정확히 찾아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외교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도 있고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있었다 없었다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남북관계는 상호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저는 외교부의 다자외교조정관으로서 이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서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을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저도 그 상황은 아는데 우리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김기웅 위원** 동의 안 하신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공통된 스탠스를 보이고 계신데 똑같이 북한은 적이 아니다,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적이다, 위협이다 그것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래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김기웅 위원** 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중적 성격이라고……

○**김기웅 위원**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적으로 변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6·25 동란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지금 핵 개발하는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는 것은 적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6·25 전쟁 외에는 적으로 변한 사례가 별로 없다, 위협일 뿐이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닙니다. 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린,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화를 해 나가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적으로 규정해 버리고 대화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이중적인 것은 아는데 ‘적이라는 측면도 있다’ 하면 될 것을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좀…… 우리 통일, 남북관계 개선해 나가야 될 동반자이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될 측면도 있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다라고 해도 쉬울 텐데 그 표현을 굳이 자꾸 ‘위협이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축소, 조정,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미 연합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라는 소아적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의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8년에 보았듯이 한미동맹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하여간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다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2017년 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했고 이것이 남북 간에 물꼬를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측에 한미 군사연습 3월로 돼 있던 걸 연기하자라고 우리가 먼저 제의했다는 거지요? 이 당시도 차관으로 계셨으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우리 쪽이 미국에 제의를 했습니까? 3월 군사훈련 연기하자 이렇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누가 제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김기웅 위원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번에 APEC 관련해서 2005년에도 초청을 했는데—북한 김정일을—이번에도 경주 APEC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생각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에 한국에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부산 APEC에 김정일 초청했을 때 미국 측 태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APEC에 누구를 옵서버로 초청할 때 절차들이 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마음대로 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충분히 회원국이라든가 미국 등에서 사전에 의논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진행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초청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생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아마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로서는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절차 또 관례를 잘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현 후보자님, 외교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제가 조현 후보자님에 대해서 프로필이나 세평을 쭉 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넘게 외교부 근무하시면서 외교부의 1차관·2차관 두루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조정식 위원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통 외교전문가라는 평가 그리고 양자 및 다자외교 또 경제통상외교 또 한미원자력협정도 하셨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안보·외교 등등에 두루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다. 그리고 실무감각과 균형감각, 외교 안목을 겸비한 그런 후보자다 이런 평이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조정식 위원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지금 전 세계의 국제질서와 경제·통상 환경 그다음에 안보 등등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불가측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한마디로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だ라고 평하기도 하고 또 격변의 시대라고, 전환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딱 들어맞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중한 시점에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이번에 그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자세로 외교에 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3년 전 제가 유엔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저는 국제정세가 매우 혼들리고 있어서 전쟁의 위협이 세계 도처에서 커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오로지 실용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밖에는 없다 이런 것을 제가 귀국해서 지난 3년간 강의 또 포럼 이런 테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말씀을 하시고 오늘 후보자 인사 말씀,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과 국제적 환경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을 갖고서 판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가치 외교, 이념 외교의 틀에 갇히면서 저는 스스로 외교의 틀을, 우리 입지를 좁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불법 계엄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외교가 셋다운되기, 위기 상황의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익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것을 정말 아주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우리 정책적 실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면밀하게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후보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국가지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잘 유지하면서 또 우리 국익과 결부시키면서 잘 끌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역시 우리는 반도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저는 평화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외교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이나 태평양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등 다자외교의 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위상과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 있는 역할도 하면서 이것을 전체로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품격을 만들어 가는 또 책임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외교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들을 갖고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메모를 했고, 제가 외교부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통상 문제 협상이 당면한 화두 아닙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조정식 위원 그동안 우리가 외교부장관이 없다 보니까 책임 있는 미 국무부나 이쪽하고 책임 있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경제·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USTR도 있고 상무부도 있고 국무성도 있

고 국방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미 협상을 위해서라도 외교부장관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부에 보강을 해야 될 게 이제는 외교와 통상, 산업기술, 산업정책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없는 외교정책이나 외교 없는 산업정책으로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의 소위 말하는 경제안보, 외교와 관계된 기능과 역할을 대폭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경제안보외교센터를 뒀었는데 이게 너무 단기적이고 공급망 중심으로만 하면서 별 실효성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이것을 경제안보외교본부와 같은 형태로 격상시켜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틀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그런 본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경제안보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상외교나 다른 여러 가지 외교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외교를 하는 것은 외교부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중요한 협상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이 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주에라도 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마지막 협상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우선 후보자님, 한국 외교의 수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자료,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퇴임 직

후에 설립한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1억 원이 넘는 자문료 등을 수령하셨는데 그 자문료 지급처에 대한 자료는 상대방의 입장 등을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계약서 역시 임차인과의 사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계신데 이 둘은 후보님의 도덕성 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청문회가 끝난 뒤에라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원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또 전례와 사례가 있어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사업자의 소득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원 위원**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알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과거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재직하던 중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억 원을 받고 임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2020년 재산신고에 밝히신 게 아니라 2년 지나서 2022년 재산신고에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산신고 누락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2019년 말에 아드님한테 7억 원을 증여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2020년 재산신고에 빠뜨리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여세를 납부하셨다고 밝혔는데,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증여했을 당시에 다 납부했고 증여세 납부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2022년 3월에 삼성전자 사내변호사로 일하시면서 주거비를 지원받아서 후보자께서 소유하신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후보자님과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보증금 1억 원 있었는데 이 또한 재산신고에 누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습적인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해임 또는 징계의 결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세보증금 9억 원, 증여금 7억 원, 삼성전자 월세보증금 1억 원 등 총 1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산 이동을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고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재산신고를 할 때 예금에는 분명히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 가지고 채무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전부 정정을 했고요. 이것은 예금에 이미 포함시켜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용원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그런데 이런 재산신고 누락뿐 아니고 삼성전자하고 맺은 월세 계약을 보면 보증금 1억에 월세 295만 원으로 파악이 됐는데 2년 동안 맺으셨지요? 그래서 총수익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살고 계신 바로 옆 동에 아드님께서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드님께서는 왜 멀쩡한 자기 집을 두고 굳이 아버지인 후보자 집으로 주거비 지원금을 받아서 들어간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전세를 내놓고 가지 않습니까? 전세기간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동, 아들 소유로 돼 있는 것은 한참 있다가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가 먼저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세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유용원 위원**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주거비 지원을 받은 후보자 아드님께서 단 한 번도 후보자께서 살고 계신 용산구 빌라맨션에 전입신고를 한 적도 없고 삼성전자와 임대계약기간 내내 아드님이 소유한 용산구 타워맨션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주거비 허위 수령이라든지 위장전입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번에 마침 6월 한 달 동안 저희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한국어 교육시킨다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돼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내내 해외에서 있었던 아들 내외가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서 잘 몰라 가지고 자기 소유 아파트에 신고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맨션, 본인들이 살던 아파트, 삼성과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거기 아파트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관리비를 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출할……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후보자께서 처음 아시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아니고 결국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한 흡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것은 저희 아들 부부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오

를 한 것이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외교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김상욱 위원** 관세 문제니까 여쭤볼게요.

오전에 질의응답 하실 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큰 무역 파트너고 동맹 파트너라서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세 관련해서 4월 2일 관세 레터 나간 것과 7월 7일 이후에 관세 레터 나온 게 다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7월 7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관세 레터 받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받은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한테 먼저 주고 다른 나라는 달리 주고 있습니다.

보면 중국에 대해서 4월 2일 자에는 54% 상호관세 얘기를 하다가 지금 30%로 낮췄잖아요, 그렇지요? 반면에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라고 얘기하는 캐나다 35%고 EU·멕시코 30%잖아요. 일본도 25%입니다. 동맹 기준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맹이기 때문에 관세에서 팬찮을 거라는 답변을 하시는지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것은 저희 국민 전체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관세 부분은 외교부장관 되시면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이다. 큰 무역 파트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협상에 유리할 것이다’.

지금 일본 협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분개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이 미국에게 엄청난 공을 들였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첫 번째 동맹 국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25% 관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관세 관련해서 확정된 나라 몇 나라 있나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인도를 비롯한.....

○**김상욱 위원** 인도가 아니지요. 인도네시아지요, 그렇지요? 인도네시아, 영국 그리고 또 한 나라 어디인가요? 후보자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32%였는데 19%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였는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상욱 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줄였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뭘 주고받기 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상욱 위원**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문제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관세협상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곳이 인도네시아지요. 그렇지요? 32%를 19%로 줄였으니까.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10%를 만들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왕실까지 동원한 총력외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일본은 왜 24%였다가 25%로 도리어 올라갔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타국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김상욱 위원**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농수산물 그리고 쌀 개방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 내용은……

○**김상욱 위원** 보도된 자료도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도됐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왜 중국한테는 30%로 상호관세를 낮췄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희토류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미국은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까지 외교정책을 해 온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말한 것 무조건 실천하려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무기가 없으면 털리는 거예요. 중국은 희토류가 있으니까 54% 얘기했다 30%로 내려오는데 일본이나 이쪽에는 미국 국채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끌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만의 협상카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여러 가지 대응책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니요,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나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도에 플러스알파도 있고 그것이 다 아닌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것을 밝히기가……

○**김상욱 위원**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호관세 부분에서 또 품목별 관

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입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실물경기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되신다면 그 책임감은 매우 막중합니다. 후보자 자리에 서신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공부……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문제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라고요.

저는 오전의 후보자님 답변 중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파트너기 때문에 팬찮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또 중국의 예만 보더라도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미국의 전체 수입 규모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규모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무역 상대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가장 먼저 관세 레터를 보내고 상황을 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요 무역 파트너기 때문에 봐줄 것이다? 그것 아닌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미국에서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내줄 것은 무엇이고 과연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 전략기획 열심히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당부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은 사실은 협상의 상대방에게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다 그대로 말씀드릴 수……

○김상욱 위원 후보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미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 공식화된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협상 내용들이 정도 중에 공개된 것들은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넘어가시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님, 아까 오전 중의 말씀 중 경제외교, AI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세협정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여러 가지 전통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신 장관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잘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경제안보 문제, 기술안보 문제와 연계된 부분이고 결국 외교부의 역할이라는 게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다른 전통적인 외교 문제와 함께 이런 경제와 기술, 특히 AI 문제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서 글로벌 3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야심찬 목표이기도 하면서, 사실 글로벌 3강 수준의 기술이나 시장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면 어쨌든 기술 의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디지털 산업의 특성상.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많은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크게 봐서는 기술과 자본과 데이터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글로벌 2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리고 자본 규모가 한국에서 투여할 수 있는 공적자본이라고 하는 게 R&D 펀드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미국의 한 개 민간기업이 가진 것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한국에서 굉장히 데이터아키텍처를 잘 구성을 한다 해도 5200만의 인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은 중국과 같은 나라, 이미 10억 정도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곳과 미국에 있는 민간기업, 수십억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비해서는 한참 수십 배 모자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제한된 기술과 극도로 제한된 자본, 극도로 제한된 데이터로 글로벌 3강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는 글로벌 전략안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 우리의 데이터만으로 글로벌 3강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도 그리고 중동을 포함해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민간협력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투자기금을 형성하고 공동된 투자기금을 통해서 공동의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사용해서 한국에 있는 디지털 인구가 5200만이 아니라 10억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한국이 가진 AI 전략들은 상당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염려는 전통 외교관으로 구성된 외교부의 조직과 전통적인 외교관이 신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외교부에는 현재는 AI나 이쪽의 기술 전담 조직이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고 그리고 외교관들 전반에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염려되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의 이해가 낮은 것은 감안할 수 있더라도 결국 AI가 우리 세계를 모두 다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떻게 세계가 바뀔지 그리고 AI 기술들이 글로벌 사우스에 확대돼서 그전에 그 지역 국가에서 가진, 이걸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인간 지능이나 지식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산업과 교육이 모든 게 약했는데 AI가 여기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 거기가 약점이 아닐 때 이 부분이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국가 액터들과 비국가 액터들, 테러리스트들이나 액터들 사이에 현격한 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력의 차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AI는 사실 크지 않은 자본, 우리로 치면 일이백억의 연구 R&D 기금이 그쪽 소규모 그룹에서 만들어지고 AI랑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생물학적 무기, 특정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국제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가능성성이 큰데 과연 한국에 있

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관으로 구성된 외교부의 전문가들이 AI 같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외교부 역량들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강화시킬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한미동맹을 대단히 중시하는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당초에 안보동맹, 그다음에 한미 FTA를 가지고 경제동맹으로 진화했다면 세 번째 기둥은 기술 협력, 특히 첨단기술동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AI도 있고 원자력 SMR, 미래 신기술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특히 AI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AI는 이게 사실은 무기나 다름없이 됐습니다. 전쟁에……

○차지호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질문만 덧붙여서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차지호 위원 한미동맹에 기반을 해서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3강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글로벌 1강과 2강인 국가와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은, 한국인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트레이닝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한미 협력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3강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미국으로 진출하겠어요, 아니면 중국으로 진출하겠어요?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공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AI 시장들이 확대돼 나가는 것에서 진출로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후보 시절에 분명히 공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는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은 사실 증진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질문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한미동맹 얘기를 한 것은 그게 기초가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 제가 쓴 이 책, 인도 대사를 마치고 쓴 책에도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14억 인구 때문에, 예를 들어 의료기술, 문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결국은 파워가 되더라 하는 것을 이 책에다 써 놨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위치가,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인도와 데이터 문제는 협조·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외교부도 AI 문해력을 높이고 AI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AI 외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주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강화하고 저희 외교관들의 AI 문해력을 전부 높여 가지고 국제협상이라든지 또는 AI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령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아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대통령의 AI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 참사, 외교 파탄을 일삼기도 한 폭정의 시대가 가고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됐는데 처음 외교부장관을 맡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한미 관계의 틀이 혼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면 현재 SMA 협정 결과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담금도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미집행 현금·현물이 5778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미집행된 현물과 현금은 전체 1조 7000억에 상당합니다. 이는 기존의 협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방위비가 철강, 자동차 등 통상 현안과 첨단산업 공급망,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4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제12차 SMA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의 중심의 새로운 전략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방적 방위비 증액 요구와 다방면의 압박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국의 중심 협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우선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한 것을 지켜 나간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구가 또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미국과 함께 서로 원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또는 신세대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협력을 잘 하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강 위원 동맹의 지속가능 역시 국익에 부합했을 때 가능합니다. 주권이 있는 외교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의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전선 재배치, 대만해협 문제 활용 기류도 관측됩니다. 한반도가 전초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외교적 자율성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전협의 없이 미국의 역내 전략에 편입될 경

우 우리 안보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외교적 부담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 변화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 문제는 사실은 2000년대 초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 간에 합의해 둔 것도 있고 또 세계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고려해서 바꿔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주권과 국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잘 가꾸어 나가면서도 서로 원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에 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이 또한 핵심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전작권은 우리 군이 독립적 작전능력을 갖추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주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공시가 되어서 상당히 오랜 논의를 거쳐 온 숙원사업입니다. 최근 복합적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곧 한반도 안보책임 및 외교안보 주권의 실질적 강화와 맞닿아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국방부와의 협업은 물론 한미 외교채널 내에서도 어떤 입장을 견지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 전작권 문제 역시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평화를 지켜 나가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로서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원칙으로 삼아 온 일종의 조건, 즉 우리 군이 충분히 역량을 갖추었는가, 그 다음에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는 어떠한가, 그다음에 한미 간의 연합군 태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외교부가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동맹은 일방적인 종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용과 국익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대로 그런 시점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자님, 장관 내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경력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해서 유럽, 인도까지 폭넓게 외교활동을 하셨고

대통령실 근무경력도 있으시니까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안보·관세 이슈 때문에 한미·한일·한중 관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중동 관련 얘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중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대사를 설치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오늘 장관후보자 모두발언문에서는 중동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다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동 각국을 보니까 그동안에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은 오일머니를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라든가 교통망 개편이라든가,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대병원이 지금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장관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금액도 수천억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UAE 같은 경우에도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하는 걸 통해서 한국 기업들도 거기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를 보시면 사실 저는 중동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교적 호의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최혁진 위원 그런데 테헤란에 가면 또 서울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하고 미국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서구 유럽과 이란 관계가 안 좋아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에서조차도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동 진출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은 인식은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동국 재판외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중동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1월에 UAE 국빈 방문 가 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거의 제가 볼 땐 망발을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중동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하고 교포 사회가 초긴장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란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을 거예요, 혹시 한국 교민들에 대한 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랜 우호적 관계 때문에 경고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것 같고 큰 불찰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언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길 하지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윤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실용적 외교에 집중했다’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 갔다’,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께서도 이걸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외교부도 가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론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머물렀어요. 결과적

으로 이후에 계속 진행된 중동과의 관계에서 부실외교의 짙을 미리 자르지 못하고 점점 황당한 국면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170km, 높이 500m의 직선도시 ‘더 라인’ 터널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맡는다 이렇게 마구 선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진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장관후보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난 건 당시 사우디도 170km가 아니라 일부 구간만 우선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답변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2.4km 터널공사 하나 따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슨 어마어마한 MOU를 통해 가지고 중동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MOU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금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수준의 협약서를 남발한 것 외에는 아무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이걸 막았어야 되지 않는가. 또 당시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뻔히 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동이 앞으로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교부 관계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중동은 어느 정도 비중이니? 대통령께서 중동대사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후보님. 외교부에 계셨는데, 외교부에서 역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쉬러 가는 곳이 중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관련해서 우리가 국익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외교부하고 해서는 실익이 없을 거고 산업부나 보건복지부나 기재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제가 외교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지금 지난 정권이 망쳐 놓은 것들을 빨리 회복해서 새롭게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유엔에서 본 중동은 세계 정치의 축소판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면 다른 지역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영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지금 이런뿐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들도 그렇고 양자 관계도 그렇고 이 국가들과의 소규모 다자외교도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말씀을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이 쉬러 가는 곳은 전

혀 아닙니다. 중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제가 아는 지금 어느 중동과장은 제가 유엔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랍에 가서 아랍어 공부하고 중동만 두 번 근무하고, 앞으로 그런 외교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제가 명심해서 외교부에서 중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대중동 외교에 소홀함이 한 치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먼저 하세요,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바뀌신 것 같은데, 저인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배 최혁진 위원님 다음이 윤후덕 위원님 아니신가요, 14번?

(「이재정 위원」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제 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17번으로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이 돌연 취소가 됩니다. 인권위로부터 수상자 통보받고 시상식 불과 사흘 앞두고 취소가 됩니다.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려를 하는지 모르는데요. 당해 모란장은 사실상 인권에 중심을 두어서 양금덕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에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92년 일본 정부 상대로 해서 첫 소송 시작하신 이래로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로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제동을 겁니다. 사실 어떤 이유로 제동을 거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문제 삼았을 때조차도 결국은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협의 차원이라고 얘기하길래 인권위는 이듬해부터 2023년 간곡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의 내용을 담아서 외교부에 공문 보냅니다. 외교부 묵묵부답. 2023년 5월에도 훈장 수여 절차 진행 요청 공문 보냅니다. 외교부 묵묵부답. 그해 10월에도 또 보냅니다. 훈장 수여 절차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요청. 그런데 외교부 응답 없음, 묵묵부답.

다른 기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외교적 고려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선정하니만 못한 모욕감을 느끼신 겁니다. 장관 되신다면 이 건 우선순위에 놓고 서훈 절차 진행해 주시면 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제가 17년, 18년 때 두 번 조문을 갔었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할머니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고 오면서 내내 제 감정을 컨트롤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좋습니다.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 할아버지 건입니다. 이분의 자녀가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판결금 수령 서류를 병원 서류로 속여 가지고 할아버지 서명 받아서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결국은 제삼자 변제안에 따른 3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수령한 사건인데요.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6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생전 우리 정부가 이런 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부터는 배상 받지 않겠다, 일본 측으로부터 직접 사과받고 배상받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입니다. 결국 지난 1월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는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삼자 변제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책임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이것 무겁게 여기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준식 할아버지의 부정 서명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외교부 직원이 2명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행위, 그래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까지 돼서 지금 수사되고 있는 사안인데 관련된 외교부 직원은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제삼자 변제, 피해자가 수령하라고 강요되는 과정은 혹시나 없었는지, 혹여나 없었는지 등등 당시의 상황들 조사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제가 외교부로 가게 된다면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에서 취해야 될 조치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정 위원 저는 일본의 자민당 의원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을 만나도 이 이야기 합니다. 윤 대통령이 빚은 모든 한일 관계의 실수는 혼자 추진한 데 있다. 피해자를 나 몰라라 한 것뿐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일본도 나이브한 거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정도 속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다시는 그런 전철 일본도 끊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의해서 결단자 혼자만의 어떤 결정이 결코 한일의 역사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한 일본의 정치인들도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조 굽히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조심해 살펴 가면서 가려 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의 한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들이 결국은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가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당당히 외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이던 당시에도 글로벌 사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을 국민께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정치권에 정식으로 도입하는 데 여기 계신 후보자께서도 역할을 하셨고 저도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 의제로 설정하고 기구화한 것, 지난 겨울에…… 아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이었는데요. 사실 현재 외교부는 총괄할 조직도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담 인력도 없고 전략 부서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구상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후보자는 다자외교에 있어서 그리고 또 2차관도 역임하셨고 또 주유엔대표부 대사까지 역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야 할 길에 대한 전략적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만 조금 먼저 답변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 내에서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우선 앞서 말씀하신 사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외교정책은 초당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외교부에 가게 되면 여야 의원님들과 반드시 의논을 드리고 여야 의원님들의 지혜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초당적 외교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해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른 여러 장관후보자들에 비해서 조현 후보자께서는 오랜 외교관료로서 전문적인 시 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가 가진 생각과 제가 가진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국익 외교를 잘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4일 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시면서 했던 말씀이신데요. PPT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방미 계획에 대해서 물었더니 ‘취임하면 미국부터 방문해야 되느냐?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저는 미국이 이미 저에 관해서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주변국,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 방문 후에 그리고 미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의 뜻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외교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 생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 세계 사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외교관료로서 해야 될 일이고 국회도 그런 일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나눠야 되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당선 하루 뒤에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첫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첫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는 관계이고 중국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인가. 그것도 첫 번째 당선 직후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대 대통령의 미 대통령과의 첫 통화 시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5시간 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후 14시간 만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이틀이 지나서야 첫 통화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은 매우 냉기류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한 것을 후보자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 관련인데 지금 취임 46일이 되었는데 아직 회담 여부가 불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11일 만에 바로 회담 개최를 했단 말이지요. 지금 한미 대통령 양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까, 잡히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잡혀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지금……

○김기현 위원 아니,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께서 다녀오신 다음에도 언제 할지 전혀 일정을 말씀 안 하시던데.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간의 사정이 다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위원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이 없이야 그러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결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년이다 돼 가도록 아직 지명조차 안 돼 있지요. 중국대사, 주중대사, 주일대사는 별씨 다 절차 거치고 청문회 다 마치고 4월 달, 5월 달에 다 부임했는데 아직 주한미국대사는 지명 절차조차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히스토리에 의해서 이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왼쪽 보시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앞부분까지도 좋다 이거지요. 표현을 어떻게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미군이 점령군이었습니까? 해방군이었습니까, 점령군이었습니까?

그러면 여쭤보지요. 미군이 그 당시에 해방군이었습니까, 점령군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당연히 국제……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입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관저로 찾아가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 간접하는 중국 대사의 훈계를 들으면서 다소곳이 손을 조아리고 두 손 모으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 훈계를 듣는 모습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분개를 했습니다. 중국대사가 뭐 위안스카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만 문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 그냥 대만에다 세세 이러면 되지’ 이렇게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으로 서명하셨고 현재 국무총리 하고 있는 김민석 그리고 법무부·행안부 죽 보시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장관후보자들 이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서명하셨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심지어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 다 서명하셨는데, 거기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서명해 놨으니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겠느냐 이 얘기인데……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제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열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경솔한 행동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악관 성명 거기에 보면 ‘환영한다’ 하고 ‘여러 국가들’, 복수로 나옵니다. 즉 이것은 한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화 시점이나 정상회담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것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통화가 늦어지다가 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통화가 아주 순조롭고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저는 정상회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 건도 어디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제에 아주 밝은 직업 외교관 출신을 뽑아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그걸 다 거치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대사대리 자격으로 지금 조 윤 대사대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잘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주변 국가와 모두 잘 지내는 실용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시고 미국에도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외교장관이 되면 바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다 해소시킬 계획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후보자의 생각인 것인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자 생각처럼 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 개인도 아닌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미국을 ‘우리의 열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협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대미외교에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장관후보자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화 제목이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지금의 글로벌 복합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대변하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또 국제적인 협력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다, 이런 시기에 또 중차대한 책임을 맡는 자리에 후보자로 여기 계시니까 더더욱 어깨가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하보다도 참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국입니까, 친중국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후보자로서 그렇게 이거나 저거나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뜻을 왜곡되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중국과도 협상을,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한국은 특수 상황입니다. 어떤 지도자로서 가는 길에, 물론 그 과정이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기의 마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막상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되

면 공존과 협치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또 중 차대한 헌법적 가치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거의 발언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관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신 외교적 노정을 보면 저는 동맹에 대한 가치, 헌법적 가치에 누구보다도 충실하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이라는 말로써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이게 지금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제가 중국 AI 또 화웨이, 로봇, 경제산업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쉽게 말하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잠재력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정말 우리가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중국 자체적 자력에 그 역량을 진짜 다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은 자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 자체 맞춤형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줄 세우기식의 어떤 동맹 이것도 통하기 좀 어렵다,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상 간에, 대개 보면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이삼 주 전에 또는 후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지금 양쪽 나라 대사도 6개월 가까이 이렇게 공석에 있고 또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도 지금 소환해서 비어 있습니다. 실용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시기에 지금 물불 안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것도 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균형외교라는 차원에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먼저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미국의 정상회담 조건이 지금 성사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세세한 것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협의를 해 본 바로는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것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서도 지금 관세 문제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타결을 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사이에 우리한테 메시지가 온 것은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리고 안미경중 그런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에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트럼프가 9월에 중국의 전승절에 초대돼서 가면 같이 갈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오케이인데 지금 당대표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두

분이 전승절에 참여해야 된다, 용기 있게 가야 된다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지금 이상기류가 있습니다. 전작권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등등의 이상기류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당 내에 이런..... 시원한 말이지요, 언젠가는 또 전작권 문제도 우리가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복합한 상황 속에서 이런 약간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이런 기조, 글로벌 시각에서 명확한, 디테일한 외교적 복합 상황들을 잘 좀 용기 있게 전달해서 혹시 외교적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역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76년에 대학에 입학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 같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했네요.

그 시대는 대학가에 민주화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이 아주 거센 그런 시절이었어요, 76년 78년 79년 이때가. 그때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인데 ‘유신철폐·독재타도’ 그런 구호를 하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후보자는 여러 번 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때 시위할 때 사복경찰 이런 사람들이 시위자를 채증하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여러 사람이. 그런데 어떤 학생이, 누가 사복경찰을 쓰러뜨리면서 카메라를 채 갖고 그걸 부수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그게 유명한 일이었어요, 일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조현이더라고요.

맞지요, 후보자?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학생운동권은 아닌데 정의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소리)

○윤후덕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서 시위에 이렇게 가끔 나오시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외무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늘공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저같이 잠깐 공무원 하는 사람을 어공이라고 그래요. 늘공하고 어공하고는 무슨 장점

과 단점이 있나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정치지도자들이 정부에 들어오시면 늘공, 저희 같은 직업공무원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 정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정치지도자 그룹에게 전달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생운동 할 때 그 일화가 있어서 조현 후보자에게 영혼이 있는 늘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부끄럽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질문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잖아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것 말은 좋아요, 어디 가서나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게 그러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민주주의, 주권국가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지나친 어떤 이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윤후덕 위원** 후보자님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익 중심이 아니고 실용외교가 아닌 그런 외교가 뭐예요? 그 예시를 좀 얘기해 봐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를 들면 어느 정부든……

○**윤후덕 위원** 이렇게 했는데 편향외교를 하고 그리고 한쪽만 쫓아가면서 외교를 하는 것 그런 게 실용외교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시로 윤석열 정권 때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그런 데 대한 비판적인 글은 그동안 사실 칼럼에서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을 리피트(repeat)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후덕 위원** 김기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상회담이 아직 안 됐어요. 저도 좀 조바심이 나오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는 위성락 실장을 비롯해서 긴밀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백악관을 포함해서 국무부 모두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국민들은 또…… 왜 이래요. 그냥 7월 말 8월 초에 어떻게 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지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비관세 협상도 해야 되잖아요. 소고기 쌀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이제 장관 되시면 미국 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패키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혜안이 있어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게 분야별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키지로 되고 그 패키지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부처 간에 또는 여러 분야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조화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25% 이렇게 부과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 윤후덕 위원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0%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불평등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한국은 한미 FTA에 근거해서 관세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입장을 다 함께 모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패키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후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오늘 사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언제 처음 봤었나 생각해 봤더니 1990년 1월이더라고요. 35년 전에 제가 유엔과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근무를 마치시고 새까만 얼굴로 들어오셨던 기억이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서,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22년 7월까지 유엔대사로 재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건 위원 그런데 그때 6월 7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고 황준국 대사가 6월 7일 지명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며칠쯤 들어오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7월 3일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7월 3일 정도, 그러니까 후임자가 지명되고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사실은 그보다 일찍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도발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유엔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7월 3일까지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라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외교도 초당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공관장을 특임공관장이라고 해서 한 30여 개 공관장들을 확 뽑아서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서 유엔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외교력을 좀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외교가 일종의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난 정부의 정당성을, 계엄의 정당성을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급하고 다닌다는 공관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력이 저하되는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미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후임 인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빨리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인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과거 인터뷰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원조를 2배 증액한 것에 대해서 ‘허세외교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는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하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DA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G7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번 답변에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2배로 늘리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국격에 걸맞

은 ODA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는 이게 허세외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OECD 원조공여국회의에 동료심사를 받으려 가서 유럽의 대사가 ‘언제 GDP의 0.7%를 달성하겠느냐’ 했을 때 제가 ‘당신들 유럽 국가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북한이 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해서 제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세외교라고 했던 것은 시간을 두고 원조를 늘려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늘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KOICA에서는 인원도 그대로고 그런데, 이것을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조 자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혹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게 허세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ODA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에 한반도정책국이라는 게 있는 것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건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정책을 이끌고 나가셔야 될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우선 당장은 남북 간에 소통도 끊기고 심지어는 핫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중기적으로는 미·북 간의 대화나 남북 대화나 이게 서로 추동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북핵을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남북 간 소통에 있어서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특히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어려운 시기인데요 빨리 취임하시고 바로 우리 국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2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G7에서 만나려고 하다가 이시바 총리가 못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2주도 안 돼서 G7 갔거든요.

원래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바람에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 될 뻔했는데 못 만난 거거든요, 안 만난 게 아니고 사정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란 사태 이후에 국내 수습이 먼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국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걸内外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현재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쉽긴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경시하거나 혹은 외국이 우리를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여러 복잡한 세계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이시바 총리도 그 뒤로도 지금도 아직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걸 걱정하실수록 외교부장관이 빨리 취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저는 외교부장관이 바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영배 위원 장관 되시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내란을 조기에 외교부 내에서 종식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중에 가장 큰 게, 유창호 부대변인 내용 아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영배 위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비서관한테 직접 전화를 두 번 해 가지고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의 주요 사유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영배 위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창호 부대변인이 그 외신비서관실로부터 PG라고 하는 걸 받아 가지고 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 직후에 이것을 외신 언론들한테 배포하고 작업을 했다, 이것도 내란에 동조하고 부화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심각한 게요 외교부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의 결해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로 보냈는데 중앙인사위에서는 경징계 3개월 감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참고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특검에서 문제가 되면 이 관련자들 전체, 즉 감사를 했던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 관련자들, 검찰의 관련자들, 다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외교부에서는 중징계 결정을 내려서 중앙징계인사위원회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 어떤 의혹이 있다면 잘 파악해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필요하다면 감찰이나 새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건 특검 조사를 보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김영배 위원** 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요, 왜 경징계로 했냐고 했더니 나온 내용이 행위의 결과가 부재하다. 그러니까 PG를 뿐였는데 그게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실패한 계엄은 내란이 아닌가? 쿠데타 일으켰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쿠데타가 아닙니까? 행위의 결과가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까,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근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좀 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심각한 게요 일별백계하지 않으면 내란은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되어서 처음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내부에서 내란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유창호 씨가 중앙인사위원회 가서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전임 외교부장관께서 이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유창호 씨가 진술했다, 그래서 이게 감경됐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확인해야 되는 심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김영배 위원** 유창호 부대변인이 기자와 주고받은—PPT 올려 보세요—내용을 좀 재구성한 겁니다만, 보십시오.

‘계엄 관련 정리 자료가 있다. 검토 후 보도해 주면 좋겠는데’, 보도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한 겁니다. 적극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다’, 그렇지요? ‘보도가 됐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이것은 업무를 챙긴 것 아닙니까? 보도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거예요. 이것 수사하면 나오거든요. 왜 검찰이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수사를 안 했는지, 감사관은 이걸 알았는데도 뭉갰는지, 은폐했는지, 이게 다 부화수행에 해당합니다. 내란행위예요.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마는 저도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올해가 한일수교 60주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하실 때 우리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견고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위원장 김석기 한일수교 60주년이라는 것이 사실 한일 간에 역사적·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한일 간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양국이 동시에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 행사도 있었고 또 6월 달에는 서울과 동경에서 서로 기념행사도 하고,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기념축사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시바 수상이 직접 참석을 했고 이런 행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 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최근 6월 달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한일관계가 좋다’ 이렇게 답변한 우리 국민들께서 55%가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아마 1995년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다음, 양국 간 국민들 교류가 작년에 1200만 명이 넘었는데 우리 국민이 약 900만 명 가까이가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많이 가는데 가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의 하네다공항이나 이렇게 내렸을 때 입국 심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60주년을 맞아서 양국 정부가 합의를 한 것이 6월 한 달간 상대방 국민들이 들어가는 전용 입국심사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입국심사를 마치고 도착하면 그냥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니까, 비행기가 계속해서 만석으로 오니까 복잡할 때는 입국 심사하는 데만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전용 입국심사대를 활용해 보니까 5분 정도면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을 6월 한 달만 하고 끝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왜 그렇게 변했는지, 거기서 중단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2003년도에 한일 FTA 수석대표를 할 때 김포-하네다 직항 노선을 만들 것을 한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면 가서 이 문제도 들여다보고 우리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일본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 실제 많고 작년 한 해에 900만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평인데 이런 것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다시 재시행하거나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한일 간에는 비자 없이, 지금 유럽연합이 그렇게 하잖아요, 쟁전 조약에 의해서. 이런 유사한 방안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혹시 후보자님, 일본의 치벤학원 고등학교라고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와카야마·나라에 치벤학원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나라에 매년 학생들을 수학여행을 보냅니다. 이게 7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50년이 됐지 않습니까? 매년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수학여행을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한 2만 명 이상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와서 경주도 방문하고 부여·공주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물어 보면 자기들 학교에서 일본 문화의 원류가 한국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것 매우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래서 앞으로 한일관계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서 한일 간 학생들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2017~18년 차관으로 근무 시에 3+1이라는 것을 제안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 대학과 한국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 학생이 3년간 수학을 한 뒤에 일본 대학에 가서 1년간 수학하고 그 대학의 학위도 받아 가지고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약 46개인가의 대학들이 일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플러스 사실은 한중일 협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한중일 또 한일 이런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래서 특히 금년이 한일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양국 국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60년이 지나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지는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준형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첫 질문에서 세 가지를 있다고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두 가지밖에 못 했는데요. 분담금하고 반한 인사들 얘기는 했는데요, 세 번째가 블랙핑크 사건인데요. 제가 바로 들어가려다가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인데 사실 MB 때, 박근혜 때도 인수위를 하고도 60일 이후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 자체 따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마치 윤석열 씨가 11일 만에 한 것이 성과처럼 보이지만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누가 봐도 한국이 미국과의 대미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조금만 늦어지면 화살을 미국에다 안 쏘고 한국에다 쏘면 이것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걸 다 알고 조금만 한국 내부 정치 흔들면…… 한국은 협상 8일 1일 내로 해내라, 큰일 났다, 빨리해라,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백악관 논평은 매우 무례한 겁니다. 첫 축하하는 자리에서 중국 얘기를 꺼내는 미국한테 비판은 못 할망정 한국이 잘못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남아공 대통령처럼 무례한 발언을 했다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미국 트럼프한테 모욕당하고 오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보시면,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스 탄을 푸대접했다고 어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모스 탄을 푸대접하면 한미관계 파탄난다.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미국이 동맹의 예의도 없고 둘도 벗어났다고 얘기했다가 대변인 성명 내셨잖아요. 그게 지금 국익을 위해서 뜰뜰 뭉치는 것 맞습니까? 미국 하면 다 옳습니까? 미국이 지금 국제규칙 다 어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뤼도 수상이 캐나다를 51번째로 부를 때, 그 연설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친미적입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들은 착하고 순한데, 합리적인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싸워서 지킬 만한 나라기 때문이다’. 그런 결기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야 이 난관을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핑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사안을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준형 위원 이게 크게 터진 것뿐이지 사실상 코바나 팀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준형 위원 실제로 저도 여기 제보를 받았는데요 6명 내지 8명의 코바나 팀이 대통

령 정상회담, 윤 대통령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씨를 중심에 넣기 위해서 월권을 하고 개입했던 사건이고 가장 선 넘게 행동한 것이 블랙핑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 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까 최혁진 위원님은 외교부가 그 당시에 바른말을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했고, 후보자께서는 안쓰럽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또 아까 유창호 대변인도 두 가지 시각으로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공연 무산 때문에 세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최고위급입니다.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까지 날아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그 당시 대통령실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형 위원 정말 외교적이신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누가 봐도 블레어하우스에서 국빈 만찬을 하면 실내악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이돌 공연을 그것도 레이디가가와 블랙핑크가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국빈 만찬은 미국이 전액을 대야 되는데 이 공연은 한국 쪽에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난감하던 차에 이게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날리게 된 거고요. 그 사람들 지금 한 사람은 퇴사했고 한 사람은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12·3 계엄 때 의도적 태업, 애국적 태업을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부역했던 아니면 이렇게 자기 직업적 자존심을 지키고 했었던 사람들 정확하게 나눠서 특검하기 전에 외교부장관 되시면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한미동맹 그리고 북핵 협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북핵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위험한 대북관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올해 2월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북핵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북한과 핵을 두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든 이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제가 칼럼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후보자께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외 없는 북한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북한 핵군축 용인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북한은 NPT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그 과정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우리 입장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협상이라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도 동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 가능한 기회의 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북·미 협상에 따른 핵군축 전환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정작 핵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한국이 협상장에서 배제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좀 모호한 발언들을 하신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6월 24일,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장관 취임 후에 방미 계획 묻는 질문에 대해서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올해 2월 9일입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강화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리외교, 균형외교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후보자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불명확하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저도 그것을 지켜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따라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형 포괄적 동맹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오히려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아니면 어디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 있는, 워싱턴의 외교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저에 대한 신뢰를 담은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명을 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른 나라를 방문 후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후보자님, 우리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 북핵과 관련돼서 매우 중심적인 부처인 것은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4강 외교부터 다양한 외교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부처라고 생각하고 후보자께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실현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외교·통일 정책의 중요 우선순위다’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도 한 것 같습니다.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아까 김건 위원님 답변에는 ‘북·미 협상과 남북 대화를 병행 추진함으로 해서 이런 평화, 북핵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방향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올 하반기의 APEC 정상회의가 불과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 이용선 위원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들의 정상회의지만 경제만이 아니라 또한 평화까지를 포괄한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특히 이번 APEC은 경주에서 개최되기도 하고 또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20개 회원국에 대해서 초청장은 발송이 됐더라고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4강은 다 초청이 된 거지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지금 미·중·일·러 정상들은 다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좀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좀 말씀을 드리거나 따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초청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북·미 대화, 정상 대화가 APEC 총회 기간을 계기로 상당히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보도 또 연구기관들 또 정부기관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합동회의에서 이것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APEC 정상회의가 이런 동아시아·태평양의 공동 번영 경제 협력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아침에 김기웅 위원님 질문에도 회원국의 동의 전제로 해서만 초청이 가능한지, 주최국의 의지가 충분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주최국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주요 국가들의 협조와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선 위원 초청기한은 8주 안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APEC 정상회의가 아태지역의 그런 공동의 과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북·미 대화, 북·미 정상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 부탁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협약을 체결하고 하긴 합니다만 두 나라가 체결한 상태의 동맹관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 동맹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동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는 남녀관계도 아니고 매번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관계로 이것을 치환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심민경 씨 특혜채용 관련한 것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국립외교원 기간제로 자격요건이 미달됨에도 취업이 됐고요. 2025년 외교부 공무직으로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서 원래 경제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국제 정치 분야로 바꾸고 경험이나 경력도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인데 인정을 해 주고 서류전형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는 원래 시험까지 치고 시험점수 50점, 면접점수 50점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험점수 50점은 어디론가 가 버리고 면접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서 지금 신원조회까지 끝내고 채용대기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혜채용을 제가 3월 21일 외교 상임위에서 처음 제기를 했고요. 네 달이 지났습니다만 외교부는 전혀 자료제출 협조하지 않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를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외교부가 셀프로 공익 청구를 한 것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심민경 씨는 채용대기 중입니다. 채용 취소를 하고 있지 않지요. 3월 채용 예정이었는데도 네 달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면 애초에 원래 이것이 필요했던 자리인가라는 생각도 들 지경입니다.

문제는 채용비위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행위 또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해서 합격자 결정에 오류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피해자를 파악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인 심민경 씨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전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의 하자에 따른 채용을 취소하고 더불어서 피해자 구제 등의 절차

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공수처에 어쨌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외교부는 그 평계를 대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외교부가 늘 해 왔던 방식인데요. 지난 7월 1일 자로 심민경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가장 하위직급, 외무영사 3등급 직원이 면직처분 조치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유라고는 합니다만 지난해 9월에 부푼 꿈을 안고 외교부에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직도 아니고 저런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배경은 아마 심우정 총장 자녀 건으로 의원면직이 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심우정 총장 딸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외교부가 그간 해 왔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늘 채용비리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말단에 있는 꼬리를 자르고 일을 마치더라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제일 하위직급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건가, 그냥 사태를 마무리하는 건가.

제가 걱정되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외교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이미 최하위직급은 면직을 시켰고 나머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 사례를 그냥 덮어 버리시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하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이후에 이런 일은 다시 또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잘 보고 나중에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한 번 더 리마인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아까 제가 아침에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님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홍기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원원하는 방향으로 심화시킨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는 원칙을 유지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윤석열 정권 때 악화되었던 관계를 개선한다, 러시아와는 국제 정세를 보아 가며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기본방향이지요, 크게 봐서?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후보자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 만에 통화했나 따지고 또 한미 정상회담 며칠 만에 했나 또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일본은 미국 대통령 몇 번 만났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못 만나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 문제 제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과 아직 통화 못 했냐, 왜 아직 못 만나냐 이런 문제 제기는 결국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사정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미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지적한다면 우리는 늘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국이 우리의 이런 분위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미관계, 한미동맹도 결국은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미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국내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한다면 항상 우리가 미국에게 낮은 자세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 외교는 국내에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받쳐 줘야 상대국에게 보다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한미 통상협상, 관세협상 관련해서 너무 시간에 얹매여서,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관세부과 시한 7월 8일 또 8월 1일 모두 미국이 설정한 시한입니다. 저는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무언가를 내놓아라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센 나라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안 또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안을 고집한다면 불가피하게 기한 내에 합의를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 협상팀이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중 마늘협상 때 제가 뒤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는데요. 그때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 협상팀이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했었어요. 당시 우리 협상팀은 3일짜리 비자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을 다섯 번 연장해서 15일 만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어쨌

거나 협상을 타결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라 국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기 편이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이 주도했던 글로벌 가치 이것 다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이제 안 하겠다 보호무역하겠다 또 동맹국가, 동맹 우리 이용만 당했다 동맹 대가 지불하라 또 다자주의 안 하겠다 양자적으로 하자, 세계적인 문제 기후변화 대응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자적으로 또 힘으로 일방적 요구를 계속해 올 텐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또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요구들 앞으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외교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잘 받쳐 줘야 합니다. 또 국회가 잘 받쳐 줘야 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자신 있는 태도로 우리 외교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외교부장관이 되면 제가 어디 가는 데의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그런 얘기였고, 대통령께서……

○**홍기원 위원** 대통령님이 아니었고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어디를 가시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최근 일방주의, 이것은 분명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이고 도전입니다. 저는 이것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방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국제질서가 혼들리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같이 더 취약한 나라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해쳐 나가야 된다, 내비게이트(navigate)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힘을 모아 주시면 외교 협상을 하는 데 큰 뒷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원 위원** 이런 점을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시고 또 국회에서도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오늘 좀 깊이 느끼는 것은 너무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정권이 유감스러운 일이 참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원전을 다시 되살린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곁들여서, 일본하고 전쟁했던 제 부친이 진주만 폭격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평생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문제들을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또 맞춰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플루토늄을, 전 장관님한테도 내가 여러 번 이것을 따겼는데 핵폭탄을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농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6·25 때 동맹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점령국입니다. 너무 매우매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을 갖다 놓느냐 안 갖다 놓느냐, 북쪽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핵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수영할 때 준비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플루토늄 농축은 준비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미군을 용병이라고 불려요. 이 말을 오늘 쓸까 말까, 별로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더 좀…… 김대중 정권 때 6·15 공동선언 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 후에 미군을 상징적으로 한 5000명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펼쳤어요. 그래서 조금, 미국이 과거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 많이 강해졌어요. 이제는 조금 편해졌으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가지고 달려드는 것은 좀…… 장관님,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쪽 병사들이 혹시 한국으로 오겠다, 아니면 외국으로 가겠다, 자기 나라 돌아가지 않겠다 할 때 인권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당연히 인권적 차원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해서 이들이 한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그다음에 두 개 국가로 이렇게 자꾸, 우리 헌법에서는 북쪽 사람이 우리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두만강을 97년 1월 달에 처음 넘었을 때 ‘참 비정상적이다. 이것 옳지 않다. 코리아가 하나 더 있구나. 왜 같이 안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개 국가를…… 심지어 민주당 출신도 있어요, 그것을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 했고.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리라고 하고 항상 통일을 생각하고 북쪽 지원도, 인도적인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해 왔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적대적이라는 말을 빼내야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분단 비용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잊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히 우리가 국력이 40배가 넘는데……

○**인요한 위원** 우리가 미래에는요 같이 다 힘을 합쳐서 세계하고 부딪혀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우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18년에는 공동체안국으로 참여를 했는데 19년부터는 계속 불참을 했지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나중에 컨센서스 조인을 했는데 공동체안국에는 빠졌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빠졌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래서 이 18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책 결정자 중에 대통령·안보실장·국정원장·외교부장관이 그대로인데 한 분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후보자께서 유엔대사를 가신 거지요. 2019년에 가셔서 유엔대사를 22년까지 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 기간이 계속 공동체안국 불참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달라진 사람은 후보자님만 유엔대사로 가신 건데, 외형상 보기 예. 18년에 차관 할 때는 참여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것은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둘째는 공동체안국에서 만들어 낸 결의안 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NSC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보시지요. 2018년에 남북관계가 좋을 때—어떻게 보면—공동체안국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8년 10월 이후에 19년부터는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화도 안 되고 다 끊어졌는데, 남북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공동체안국에 불참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정부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고려했길래, 북한에게 뭘 기대했길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빠졌느냐. 그때 보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북한인권 문제는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21년에. 어떤 점과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길래 딜레마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러면 19년 이후에는 도대체 남북관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셨기에 우리 정부가—사실은 유엔대사셨으니까—불참 쪽으로 갔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때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고려에서 공동체안국에

서 빼셨을 가능성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덜레라고 말씀드린 것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우리가 인권을 자칫 너무 우선순위에 두면 북한 정권의 성격상……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런 것 사이에 덜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그사이 21년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부산 아세안 회의에 초청하는 친서 보내서 북한이 안 간다고 거절하고 공개한 것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

오늘 모두발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내용을 궁금해서 여쭙는데 6페이지 보시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리는 게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그냥 읽는다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이 얘기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체가 남북으로 지금 일단 표시가 돼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 이렇게 돼 있지요. 대화에는 갑자기 ‘북한과의 대화의 길’, 그러니까 이 대화가 누구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건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북 간 긴장’이라고 이렇게 쓰신 이유하고, 대화 재개를 그냥 남북이 하는 걸로 쓰시면 될 텐데 굳이 ‘북한과 대화 재개’ 해서 제삼의 대화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 그건……

○김기웅 위원 단순히 기술적인 실무자들의 표현 문제인가요, 아니면……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요, 제가 다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라고 한 것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도 미·북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표현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긴장 완화 주체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 재개 주체가 좀 혼란스럽게 써 있어서 그걸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김기웅 위원** 잠깐만 이어서 하면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남북 말고 다른 요소도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군사적……

○ **김기웅 위원** 여기 ‘긴장 완화’에 남북 간에 말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 거지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지요, 긴장 완화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지,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하는 데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

○ **김기웅 위원** 그러면 대화 재개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대화 재개요?

○ **김기웅 위원** 그건 누가 누가 합니까? 여기 써 있는 표현은……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우리가 미·북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해서……

○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빼고 대화 재개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 써 있는 대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대로 미·북 간에 될 수도 있고 남북 간에 될 수도 있고 이것을……

○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 재개’라고 쓰신 거잖아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 **김기웅 위원** 굳이 ‘북한’을 넣은 거지요. 그렇지요? 없어도 될 말인데, 그렇지요? 그럼 앞의 ‘긴장 완화’도 같이 ‘한반도 긴장 완화’라고 해야지 ‘남북 간 긴장’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제 얘기는.

○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 **김기웅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식 위원** 후보자님, 우리 외교가 앞으로 대외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단의 쿨레와 명예를 우리가 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고 조될수록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록 그리고 안정될수록 코리아에 대한 프리미엄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숙명처럼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코리아 리스크를 이제는 좀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저는 그리고 그런 데서 외교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아까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외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저력, 특히 청년층의 정말 뛰어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대로 민간이 외교의 주체가 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평화외교가 단순하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과 그다음에 안정을 주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다, 다른 것 그냥 굳이 다 떠나서 딱 하나 제가 제일 안타깝고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평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도 당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부에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접경지역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고 괴수·괴음 방송에 시달려야 되고, 이마다 막 풍선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외교부가 평화외교의 구상과 전략 수립을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북·미 접촉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이런 여러 가능성들을 감안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부활을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외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로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와서 평화외교 구상 단계부터 여야 위원님들의 지혜를 얻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데 반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대미 외교관계에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미관계가 오랜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아래서 동맹국한테도 아주 그냥 막 청구서를 내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첨단기술이 안보이자 경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통적인 군사동맹 중심의 한미관계와 동맹관계가 이제 양국 간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우주 그다음에 방위산업 등등 이런 첨단 미래전략산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콘텐츠 이런 것까지 더 망라해 가지고 좀 미래형인, 소위 말하면 서로 호혜가 될 수 있는 전략 동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이제 서로 원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강점

가진 것은 우리한테 좀 하고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렇게 갈 때 저는 건강한 한미관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께서, 여기 모두 말씀에 보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장관에 부임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이 세계를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무기로도 될 수 있고 정말 전쟁의 양상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미국과 함께 안보 동맹, 경제협력 동맹 그리고 기술 동맹을 합해서 미래지향형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후보자님, 주유엔대사로 재직하시던 2022년 3월 유엔총회 제11차 긴급특별총회에서 연설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2022년……

○**유용원 위원** 2022년 3월이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3월이오? 우크라이나 전쟁……

○**유용원 위원** 예, 맞습니다.

당시 연설 주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철군 요구’였는데요.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주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지원 언급하시면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러시아 침공 강력히 규탄하고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의 이 연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이 느껴졌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가 지금 2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지만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이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은 밝혔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추가로 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 모 씨라는 분이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에도 여러 차례 강력히 한국에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에 외교부 관계자가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만 방문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 4월에 두 차례 방문한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도 좀 받게 되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떠한 고려에 의해서 이런 입장이 바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건 헌법에 관한, 헌법을 준수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라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조용하게 외교 교섭을 통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북한이 보면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한 1만 5000명 정도 파병을 했었는데 지금 공병을 포함해서 민간인력까지 하면 3만 명 정도 추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입장을 바꿔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방어용 무기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것은 우크라이나뿐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 또 미국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가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 우리나라의 군사력, 대응태세 등을 감안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음을 첨언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다면 공격용이 아닌 비살상무기라든지 예를 들어 드론 재머라든지 이런 방어용 무기 지원은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또 유럽 여러 나라들 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국 일본이라든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원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마가(MAGA) 진영이라 하지요. 트럼프 쪽 대외관계의 특징이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또 미국 국익만 챙기자 이런 경향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협상할 때 보면 미국의 선의만 믿고 또 무역파트너·동맹 이것만 믿고 하다가 결국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과는 미국이 희토류나 이런 국익 때문에 도리어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보면, 예의도 잘 지키지도 않아요. 베트남과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합의했다 20% 발표하고 베트남은 뒤늦게 11%로 낮추기 위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략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지략가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추진했던 BBB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시겠지만 5000억 달러, 연간 한국 원화로 약 690조 원 정도의 감세가 미국에서 벌어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실효 관세율이 15%만 넘어도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관세 25%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도 있지요.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구리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것들은 50%까지 품목별 관세가 더해집니다. 관세가 이렇게 더해지면 기업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연하겠지만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위협을 주게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님이 되시면 각별히 미국 관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상욱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장관후보자께서 이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IEPA라고 하지요. 이며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행정명령을 발휘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 관련한 CIT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 얘기는 보도를 봤습니다.

○김상욱 위원 왜 그런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공방 내지는 논박……

○김상욱 위원 이 이며전시, 말 그대로 이며전시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미국이 지금 이 행정명령을 발한 것이 특수한 특별한 상황인가, 일반적인 상황인가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것은 그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 IIEPA 법령 안에 태리프(tariff) 또는 택스(tax), 태리프 레이트(tariff rate) 이런 관세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도 없는 거예요.

권한도 없고 특수한 발동요건도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없이, 요건 없이 발동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만장일치로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관세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상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한다고 무조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 없는 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협상에 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외교부의 수장이시고 또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이 미국 관세 문제라면 이 관세의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짚어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이 외의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하반기에 국채 발행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더 발행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보통 미국이 한 해에 국채 발행을 2조 달러 정도 발행을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거의 발행을 못 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것만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2조 달러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대 국채 채권국이었지만 다 털어 내면서 지금 영국보다도 적게 가지고 있고 일본이 최대 국채 채권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에서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2조 달러에 달하는 그 국채를 팔 곳이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김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한 부분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김상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미국의 국채가 그전에도 디폴트할 가능성들이 있었어요. 실제 지금도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적자도 아주 심각하고 무역적자도 아주 심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이 전체 예산에서 채권,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예산에서 16%를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심각한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건데, 지금 몇 나라가 타결됐잖아요. 인도네시아는 19%의 관세율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수입품은 제로 관세로 하고,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상호관세가 아니고, 저는 상호관세라 그래서 저쪽에서 25% 부과하면 우리나라로 미국에서 오는 것 25% 부과하는 줄 알았어요, 상호호혜 관세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0%를 부과하고 미국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25%를 부과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약탈관세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래서 이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 미국의 일방주의 또는 고립주의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문제는 우리가 8월 1일, 장관 되시면 빨리 미국 가서 협상하고 그래도 앞의 나라들 타결된 걸 보니까 그런 약탈관세로 그냥 타결을 했더라고요, 영국도 타결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가 집권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영원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이것은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하나의

게임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윤후덕 위원** 아주 조심스럽지요. 장관 되실 분은 조심스럽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트럼프 아직도 4년, 3년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는 알려 줘야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세일즈해서 원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원원을 해도 다른 나라 지금 한 것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19% 관세율로 타결하고 그랬던 거예요. 겁나지요, 현실이?

아니, 그러면 이게 타산지석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제로·제로, 그러니까 FTA 정도 수준으로, 4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 정도까지는 해내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야지 또 국민한테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이나 또는 타깃을 정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특별히 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넘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 포지션을 다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여튼 이게 기본관세, 상호관세, 품목관세, 아주 세트로 공격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관세의 품목들도 관세나 그런 장벽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처지에 장관에 취임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 중에서 8페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보니까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신남방·신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를 계승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로부터 계승한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후보자께서 외교부 2차관으로 부임할 때 남긴 취임사를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통상적인 수사로 채운 취임사와 다르게 후보자의 진심과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교부 내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 평가와 보고를 위한 쓸데없는 업무들에 지친 구성원들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조직문화를 바꿔야 다들 힘들어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까를 주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외교부라는 조직에 대한 후보자의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취임사에서 보여 주신 철학과 문제의식이 후보자께서 강조하신 외교역량 강화라는 목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특히 대한민국 K-아이셔티브 실현, K-컬처를 확대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재외공관 간의 통합과 조정,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재외공관 중에 상주 인원이 5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공관이 절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맞습니다.

○**이재강 위원**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현지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당하는 외교관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공관 간 통합과 조정 이외에도 현지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사 문제도 좀 쟁여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특임공관장들의 자질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역량과 자격이 모자란 사람,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여행을 하는 사람을 정부와의 정무적 코드를 최우선적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기간 외교부에 몸담으시면서 아마도 외교부 혁신과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구상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최종 목표는 모든 직원이 퇴근 시에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퇴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은 일종의 어느 부품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이 올바르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톱다운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런 정신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외공관의 통합 조정,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특임공관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인사로 가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또 취임사에서 안보외교, 경제·통상 외교와 함께 통일기반 조성 외교가 우리 외교부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목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외교전략본부로 통합 이관됐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는 달라진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특공대 같은 정체성이 사라졌다, 6자 회담 국가들의 채널 유지 또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한반도 평화통일, 통일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이러한 조직 복원 또는 기능 회복에 대한 입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조직 개편 계획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게 되면 그 분야의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 중의 하나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또 후보자께서 역시 취임사에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곁으로 나타나는 국민 여론이 국익과 과연 일치하는지,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그 안에서 진정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에서 후보자의 외교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앞으로도 그 원칙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최혁진입니다.

후보님, 한일관계 복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아닌가라고까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광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아래저래 찾아보았는데 대한민국 한일 관계 이 외교문제에도 국정농단 세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ECI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대한민국 외교부 512호 허가 사단법인입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에게 이 ECI와 김충식의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교부는 그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했지만 저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열린공감 TV 등에서 알아보니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난 일본 통일교의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이 있고요.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는데 최은순과는 충은산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 충은산업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이분이 2023년 7월에 등기이사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외교문제에 대한 개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의 명예총재가 일본 황족회의 나시모토 노미야입니다. 이 단체 주변에 일본의 극우, 무속, 천리교 같은 신흥 종교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시고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충식이 이사가 된 다음에 일본 덴리대학교,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지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빼앗긴 문화유산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가 되어 있지요. 이 몽유도원도와 국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지휘권으로 하사받은 건데 우리 정여립 의병장이 가토 기요마사를 패퇴시키면서 뺏은 거지요.

저 칼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유력 집안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그 집안에 계속 전화를 해서 한일 60주년을 기념해서 저 칼을 일본이 원하니 돌려주겠다, 일본 황족회와 얘기가 다 돼 있다, 몽유도원도를 찾았다 널 줄 테니까 칼을 내놓으라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리대학교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빼앗긴 국보급 문화재와 그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권을 국민들도 모르게, 외교부도 모르게, 정부도 모르게 비선실세가 함부로 자기가 돌려준다 마다, 일본천왕이 한국 방문했을 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별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전진법사지요, 비선실세 중의 하나입니다. 비밀 포교원인데 아마테라스 신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천왕의 신을 모시는 전진법사의 뒷배가 바로 김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극우정치, 최근에 일본이 극우정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히 극우종교가 뒷배가 되고 있는 극우정치 집단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ECI라는 단체가 어디까지 손을 벌리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활발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가 김충식을 통해서 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ECI가 모두 잠수함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부가 일정하게, 김성환 의원께서도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한일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장관후보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놀라운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사건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와는 별도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장관님, 오전에도 MBC를 향한 외교부의 소위 ‘바이든-날리면’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에 입장을 정리해 주셨고 또 사전질의에서도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물었을 때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소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사과를 포함해 수습하겠다라고 답하셨는데 이 사과, 수습, 어떤 형태가 될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어느 계기에, 가장 가까운 계기에 이 일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외교부의 신임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또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고 교훈으로 삼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밝히려고 그립니다.

○**이재정 위원** 이 소송 제기한 것은 정리해 얘기하자면 외교부 결정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러-우 전쟁 이야기도 언급하고 또 중국과 관련된 시각을 보여 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관련해서 너무 획일화된 외교적 태도로 인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국익 중심 외교를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대러 관계 그리고 대중 관계를 보면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자는 아까 모 위원님의, 어떤 위원님의 언급처럼 대러 트럼프의 공세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름 대공세를 사실상 용인하다시피 한, 어떻게 보면 50일 간의 말미를 준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하의 전술적인 변화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 전황을 저는 2022년 2월부터 잘 살펴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리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레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을 보면서 드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정 위원** 이파가 제 질문 이후에 조금 더 이어 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동부전선 이외에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요. 사실상 당초 전쟁 초기에 밝혔던 러시아가 원했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오. 이게 뭘까 의미를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결국은 50일간의 말미, 여름 대공세를 통해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의 협상을 염두한 것이다, 그것을 트럼프는 모르지 않는다, 사실상 서로 간에 그 정도의 생각들이 공유 아닌 공유가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대중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 한국에도 보도가 됐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이재정 위원** 저도 지난달 말에 중국을 방문해서 언뜻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관계업체에 물어봐도 아무도 그 징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몇 분 외통위 위원님들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거의 이삼 주 이후에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보면 미중 갈등의 핵심이 칩이었지요. 그리고 14나노 이하로 통제했었고 사실상 7나노를 기준으로 굉장히 첨예했었는데 H20 같은 경우는 5나노예요. 뿐만 아니라 AMD의 MI308 이건 뭐냐 하면 GPU 가속기예요. 사실상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되기까지 했던 그 AI 경쟁, 물론 일부 제한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디커플링될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독자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견제다. 미국의 생태계에 의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 처음부터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디커플링될 것처럼 얘기했던 말이지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의 이런 전략적 태도 변화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런 실리적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트럼프는 저기 나가 있는데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습니다. 실리외교, 국익 중심 외교에 있어서 러시아·중국, 대러시아·대중국 외교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추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희가 다 관찰한 것으로는 강대국 관계는 한참 대립을 하는 듯하다가 관련국들이 미처 생각도 못 하게 갑자기 관계 개선을 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70년대 초에 미중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가장 큰일이지만 그 후에도 그런 것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대응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한 인사가 시진핑 주석이 APEC 회의에 참석 할 거라고 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건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기현 위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예정인 것은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대통령실에서 어떤 근거로 그분한테 실제로 얘기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APEC의 경우는 차기……

○**김기현 위원** 자세히 잘 모르신다 이런 건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론해 보건대……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추론해 보는 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도 미정인 상태인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거기에 참석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김기현 위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희망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밝힐 수 없는 근거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여느 때와 달리 전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편되는 혼돈의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와 같은 4강, 다른 2강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참석해서 경주 선언과 같은 모습으로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미 정상회담, 양자회담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존하는 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북진해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 항구적인 안전 보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흥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다 인정되고 있는 것 맞지요? 후보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김기현 위원 후보자의 전망.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리비아 사태도 보면서 김정은이 핵무기에 대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판단인데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도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포기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면, 우리가 당연히 포기시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 보장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후보자님, 그렇지요?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북핵의 폐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평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향해 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없지요? 말로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체임벌린도 2차 대전 직전에 뭔한 협정 들고 왔던데 다 종이 쪼가리였지 않습니까. 2차대전 직전에, 그렇지요? 그것처럼 힘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 비대칭 무기,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그것을 NCG라고 해서,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서 조금 더 진전을 했습니다마는 NATO식 핵공유로 더 진전해 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시점에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노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받지, 미국이 언제 마음 바꿔 버리면 우리가 대책 없지 않습니까? 핵우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무기 포기 없는 종전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무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만 중간 단계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외교는 희망을 위한 노력 그러나 워스트 시나리오, 가장 나쁜 것에 대한 대비 2개를 다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희망에 근거한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말씀드리지만 대비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아까 안철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서해 구조물, 우리가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통해서 그것을 내해화해서 소위 자국의 어떤 군사적·행정적 통제권을 강화해 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어떤 섬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자국의 이익을 전술적으로 전략을 짜 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서해 구조물도 그런 흡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전략이 차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차단과 동시에 이 부분의 로드맵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한중 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대응을 하면서 필요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한미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방위조약의 전문을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한 세 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공동 대응.

만약에 남태평양이라든가 대만 문제 유사시에 병력의 어떤 역할, 의무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위원님, 제가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실제 중국 견제를 위한 원 시어터(One Theater)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동맹이 동맹의 개념으로서 태평양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대응한다. 여기에는 일본, 호주 또 필리핀, 한국 그리고 NATO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까지도 포함되는데 지금 실제 우리를 뺀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동참을, 결속을 다지고 있고 만약의 경우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한국 영해 밖으로 빼서 주한미군의 어떤 구체적 운용 방안을 한국과 다시 협의하겠다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지인들과 제가 지금보다 훨씬 자유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는 의견을 많이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메시지는 현상 타파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2개의 국가 간의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미 후보자로 지명돼서 여기에 앉아 있는 마당에 가정적 상황에 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스테이터스 쿠오(status quo), 현상 유지를 타파하는,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치 않는다, 이게 국제질서상의 어떤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전작권 환수 문제도, 주한미군의 운용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라는 입장은 D.C.에 회자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제로서의 운용 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미 당국자 간에 공식적으로, 전

작권 문제는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호 위원** 국가 간의 핵심 이익에 대해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후보자님, 아까는 AI 문제로 국제 환경의, 질서의 변화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한국에서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기후외교가 확산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 완화, 탄소중립의 측면 말고 결국 기후변화가 이제 위기 형태로 계속 격심해지고 있는데 그게 국제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것은 전지구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탄소중립을 우리가 달성해야 우리 인류의 장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지호 위원** 탄소중립 문제를 넘어서 이미 기후 적응의 문제로 국제 기후 관련된 논의들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의의 축은 지금 탄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그 위기의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만 기후위기의 여파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들은 공감대가 있고요. 그랬을 때 기후 영향이 여름에 좀 더 덥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 가뭄이 오기 시작을 하면 식량위기가 오게 되고 그리고 식량위기가 오면 많은 기후 취약국에서는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런 취약국의 제한된 불안정한 거버넌스 안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거의 많은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취약국인 중동 같은 곳이나 아니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오게 되면 미국과 같은 국가의 안보의 축은 사실 중동 쪽과 동아시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지역에 굉장한 정세적 불안정들이 연쇄적으로 일으켜졌을 때 과연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다른 기후 취약국인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한 시나리오들인데 한국의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5년,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전략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지난 20~30년 동안 같은 형태의 국제질서가 유지된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AI나 기후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 질서들

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외교부의 여직까지의 외교적인 대응은 너무 반응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그런데 이런 큰 국제사회의 흐름들, 글로벌 전환 과정들을 먼저 읽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희가 실은 80년대 CFC, 냉매제를 금지하는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됐고 그 당시에 우리가 막 그 냉매제를 활용해서 냉장고를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매제를 없애서 지구의 오존층을 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다마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경험·교훈 삼아서 한국 외교에 있어서 적어도 기후변화만은 저희들이 참 열심히 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녹생성장입니다.

○차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AI나 기술 관련된 전문성 있는 단위가 외교부 안에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라든지 혹은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들,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인구 증가폭이 감소되고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인구가 폭증하면서 만들어지는 글로벌 불평등의 심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에서 조금 더 예측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답변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 외교부 안에 기후변화와 특히 기후 적응 과정, 외교부의 주요 일 하나는 탄소중립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변화되는 기후위기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적응해 나갈 때 여기 선도적인 적응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국제협력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ODA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원조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형태인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ODA 형태는 예전에 개발하는 방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자 간 협력체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기후변화와 같은 다중 복합 위기요인들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국제협력과 어떤 새로운 협력 어젠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원조 문제 그리고 외교부 안에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이 국제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 그런 것들이 외교부 안에 있는데 좀 더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원조 프레임도 전면적으로 재고해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지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지난 정부 얘기만 자꾸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청문회가 되게 해 달라 이런 문자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외교부장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하시는 거니까 외교관을 오래 하셨고 저도 외교관을 오래 했는데 외교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말이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 우리 협상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밤을 새워서 협상을 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표현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종인데 오늘 후보자님이 두 가지,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잘 준비되고 생각되고 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규정하셨거든요. 그것은 사실 난생 처음 보는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얘기할 때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으로서의 북한도 있고 또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 상대방으로서의 북한, 그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성인데.

그런데 왜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중의 첫 번째 것, ‘적’이라는 것을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엄중한 표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외교부가 이 남북문제에 관해서 미국 등 여러 우방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한편으로 예스냐 노냐, 주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교에 있어서 표현의 중요성 이런 점을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들었는데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것을 결국은 우리가 그 중간 어디, 중간이 아니라 어느 두 지점 간의 어디서 선택을 그때그때 국제적인 정세, 남북관계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식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 표현을 바꾸거나 고쳐야 된다면 김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한반도정책국장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까지의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저는 표현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비핵화와 병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보통 이런 말을 쓰거나 어떤 정부에 따라서 그런 말을 아예 쓰지 않거나 그랬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그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말을 쓴 정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는 처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이것은 사실 지난 대선 전에 여러 분들과 공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토론의 대상이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부터 진화를 해서 변모된 상황에서 무언가 새롭게 실용외교로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또 우리 여러 부처들과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PPT 좀 띠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스 탄이라는 교수가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못 하게 되니까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강연을 했다고 그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USAID라고 하는 데서 한국에 있는 선관위가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한국을 부정선거를 저지를 나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부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조사해서 이걸 밝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미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 한미관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 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번 선거는 도적질당한 선거다’라고 발언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도적질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서 경찰에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는 보겠습니다만 한미 간에 동맹을 강화해도 모자랄 시점에 이런 분들이 버젓이 이렇게 활동하는 이게 도대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로서 해서 되는 일인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당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왜 반박하지 않는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당의 지도부들이나 혹은 다

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제가 볼 때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 민간인이 와서 얘기한 것이고 또……

○**김영배 위원** 이분은 그냥 민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언론이 주목을 더 하는 거거든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인 어느 민간인이 와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당국에서 이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 간의 동맹관계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 정부도 이런 의견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경제통상 관련해서 이번에 한미 간의 협상 과정을 좀 보면서, 제가 볼 때 우리 외교부가 경제통상 그러니까 경제안보라고 요즘 미국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여기의 전문성도 좀 떨어져서 전문적인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에서 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보고 외교와 그리고 통상업무—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지요, 산자부에 있는—이것을 통합적으로 볼 뿐만 아니고 국방·안보 이슈까지를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니까 경제안보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한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부가 보고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났어요. 어떤 보고를 하셨나요, 어떤 방안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외교부에서 경제안보를 중시해 가지고 조직을 좀 늘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있는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도 경제통상, 경제안보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좀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모양이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쭉 이렇게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할 텐데 추가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다가 18시 10분에 정회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NSC, 안보실이라는 게 원래 국제정치에서 제가 배우기는 일단은 사실은 연락장교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장관님처럼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연락의 문제인데요. 서로 소통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도 전작권 문제라든지 패키지 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장관후보자부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적 현상이라면 오히려 안보실에 정말 전략적 소통비서관 같은 자리를 신설해서, 소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안 돼 가지고 사실 계속 언론의 공격을 특히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았던 기억도 있고, 실제로 메시지 관리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전략적 소통비서관이 생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NSC와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소통비서관, 이름이 무엇이 됐건 간에……

○김준형 위원 예, 이름이 무엇이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각 부처 간에 그런 협력을 더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패키지 딜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트럼프의 방식, 미국은 패키지 딜 안 한다고 이미 선언했고요. 트럼프 방식에서 패키지 딜은 우리는 둘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패키지 딜의 유리한 점은 이쪽에서 좀 양보를 해 주면 저쪽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의 관세를 좀 더 내려주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대치인데, 사실상 트럼프는 이쪽에서 양보를 받으면 그것을 기회로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큰 양보를 받는 것이 협상의 방법이라면 저는 패키지 딜은 우리가 다 뺏길 수 있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협상에 여러 방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타협이 잘 안 되는 것은 분리를 시켜서 타협을 쉽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이라 그래서 모든 걸 하나 묶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패키지 딜이 반드시 좋다,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김준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패키지 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트럼프의 틀에 오히려 우리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에 따라서 몇몇 분야는 그렇게 실제 협상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 일본 보도에 따르면 4000억 불에 달하는 제조업 펀딩을 만들어 내라고 하고 한국에는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청했을 가능성이 꽤 있지요, 일본에 그렇게 했다면.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앞으로 8월 1일까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게 되면 바로 이 문제를 꾹업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일본과 지금 우호관계에 있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 문제 그리고 또 영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방위백서를 보면 2005년 이후에 올해에 이르기까지 21년 연속 자국 고유 영토 다케시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안철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긴장을 고조하고 있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정하면서 이 영토분쟁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병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독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것은 염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됩니다.

다만 일본이 분쟁지역화하려고 하는 책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지역화하면 결국은 ICJ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도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혹시 국제 여론전 관련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또는 다른 이런 국제기구에서 그런 여론전 측면에서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것 역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다만 국제기구라든지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강조하거나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제기했을 때 이게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 내년에 2026년이 되면 또 차기 방위백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이 표현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더 바람직하게로는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의 지침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영토 문제라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이렇게 무슨 양보를 해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라는 점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년 가면 이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철수 위원 결국은 이 문제가 한국 외교나 또는 안보에 관련해서 정말 큰 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후보자님, 작년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의결됐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심판은 현재로 넘어갔습니다만 권한이 정지돼서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기관 중에, 331개 공공기관에서 53개 기관장이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된,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인사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보는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 외교부에서도 그런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이사가 외교부에서 장관이 임명한 바가 있는데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교류이사, 기획이사가 임기가 9월, 12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먼저 만료된 교류이사는 그대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뒤늦게 된 기획이사를 공모 절차를 해서 기획이사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와 순서가 좀 이상하고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한·아프리카재단 같은 경우는 공모 절차도 없이 전직 외교관 출신을 임명했는데 이분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19년에 한미 정상 간 통화를 당시 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파면이라는 중징계, 큰 징계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이런 분을 공모 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대행 체제라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에 이루어진 이런 인사가 매우 절차상 하자도 많고 내용도 있을 수 없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절차상 큰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일 간은 미래 협력 부분하고 과거사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더라도—특히 올해는 다시 수교한 지 60년인데요—과거사 문제는 또 과거사 문제대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된 지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세계유산위에서 했던 모든 결정과 일

본이 했었던 약속을 명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모든 결정과 약속에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에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한 사실, 강제동원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기재를 하고 표시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도광산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일본 근대산업유산 관련해서 후속조치 재논의를 위한 안건을 표결 처리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것 표결에 못 부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러나 공론화를 한 것이고 계속해서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대개 우리가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을 할 때는 표결에 부치기 전에 유네스코 대사 등이 해당국들의 의향들을 충분히 물어서 이것 표결에 부치면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할 때 부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책 없이 부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면 외교전에서 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한국인의 강제동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 할 수가 없다, 반대한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역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요, 사실은?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사실은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어떤 소망을 얘기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그래서 잘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나가면서,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꾸준히 제기해 나가면서 일본이 스스로 조금씩 변모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광산이나 또는 군함도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가 전략적 대응을 초기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함께 사도광산 또는 군함도 그 문제만 가지고 합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하면 사실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 문제의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 가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0년에 만들어졌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구성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5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15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은 계속적인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와 관련한 지원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밟아야지만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를 폐괴하고 있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소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하셔서 해당되는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져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자간이든 양자 간이든 협상을 할 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주장이 나오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를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는요 사실 단숨에 어떻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면 오히려 일본이 나중에 우리보고 골포스트를 움직였다고 비난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되치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간의 한일 간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거듭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민간에서 여러 활동을 해 오신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저까지 해 주시지요, 아직 10분 안 됐는데. 점심 때도 잘렸어요.

○위원장 김석기 지금 시계가 몇 분입니까?

(「8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후보자님, 제가 최근에 여러 중동 지역 전직 대사들 또 전문가들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중동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 정부가 그리고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중동외교가 굉장히 소홀했다. 중동외

교, 지금 중동 지역이 에너지라든지 또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소홀한 경향이 있다, 중동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후보자님 외교부에서 몇십 년 하는 동안의 이력사항을 보니까 아프리카·아시아·유럽·아메리카 다 하셨는데 중동 지역 이쪽에서는 근무하신 경력이 없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합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IRENA(세계재생에너지기구)가 거기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필요하면 대사도 임명을 따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 중요한 건의사항이 가능하면 특사를 좀 임명해서, 중동 지역의 경우는 정권이 오래가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특사를 임명해서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만약에 특사 임명이 좀 어렵다면 최소한 외교부에서 전담대사라도 임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전담대사 임명하는 것은 외교부의 인력을 활용하면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있잖아요. 또 한·아프리카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중동 국가, 넓게 보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들 생각하면 결코 아세안이나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사우디한테 119 대 29로 참패했는데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슬림 국가만 해도 50개가 넘거든요. 사우디는 그 나라들을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좀 버거운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한-중동 간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제가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부분 답해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모두발언 6페이지 끝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끝부분 넘어서 7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핵화라는 단어 앞에, 물론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하셨고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표현에서 정교해야 한다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단어들을 갖고 제가 보는 건데, 비핵화 앞에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걸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여기서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구조 구축’, 아까 김건 위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남북 간에 10·4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합의에서는 물론이고 6자회담에서도 계속 채택해 왔던 용어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 캠프에서 의논들 하시면서 ‘평화구조’라는 말을 새로 쓰기로 했다 해서 설명하는데, 느낌이 말이지요 이게 갈퉁이 얘기하는 ‘구조적 평화’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전혀 관련 없어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혹시 정동영 장관이 얘기했던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단순히 외형상의 충돌이 없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평화체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의존이 높아져서 구조적으로 어떤 충돌이나 분쟁이 야기되지 않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처럼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평화구조라는 표현을 갖고 오신 건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주장한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채택되면서 했던 것은 그런 학문적인 또는 다소 관념적인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차별화해서 변모된, 더 어려워진 북한의……

○김기웅 위원 하여간 설명은 됐는데, 제가 보면 기존에 다 쓴다, 많이 쓴다 합의서에도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게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그런 우려는 안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김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종전선언이 마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단순히?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다음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빨리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미외교가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저는 공공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조정식 위원 더군다나 지금 대미외교는 다양한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부 공식채널 외에도 우리가 관계하는 주요 싱크탱크라든가 교민사회, 한인 커뮤니티, 미국 사회에 다양하게 여러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교류를 미국 측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미외교나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협상에 있어서의 외곽 지원과 우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력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앞으로 외교부가 이런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데 후보자께서 더 큰 관심과 실질적인 강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공공외교, 특히 우리 국회의 역할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미 의원 친선협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머지않아 회의도 갖고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국회에는 한미의원연맹이, 아직 미국 측에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미한, 우리는 한미의원연맹이 구성이 됐고 또 워싱턴에 한미의회교류센터도 개설이 됐어요. 정상 가동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국회가, 특히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외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한미관계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미 협상의 최대 현안은 많은 의제가 있지만 관세협상입니다. 특히 이 관세협상에 지금 보편관세와 관계되거나 상호관세 관계에서 우리 주력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이 분야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것은 한미동맹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관에 부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미 측에 강력하게 전달도 하시고, 특히나 제가 현장 관계자들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미 투자한 게 1600억 불이에요. 엄청난 숫자지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추가로 거의 한 1000억 불 가까운 추가 투자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관세를 두들겨 맞고 또 더군다나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들을 한국에서 조달해 오면 거기다가 또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철강 50% 그다음에 부품·소재에 막 25% 이런 식으로. 이래 가지고 이게 벼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의 이중적인 관세장벽 이것도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또 비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인력들이,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그러면 실제 숙련된 인력들이 와서 빨리빨리 공장도 짓고 가동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비자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아주 생생한 애로들을 미국 측에 충분하고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이게 결코 대미 투자나 한미동맹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장관 부임하시면 곧바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관세 협상과 대미 협상이 호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원하는데 잘 설명해서 한미 제조업 공동 르네상스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후보자님 아까 모두발언에서 서해를 포함한 우리 주권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절대 공감하고요, 말씀 듣고 반가웠습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2월 26일에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중국이 해경 함정 두 척하고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유용원 위원 그때 고무보트 중국인들이 흉기를 휴대하고 온누리호 후미에, 함미에 붙어서 조사장비 투하를 방해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했는데요.

PPT를 통해서 당시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처음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에 우리 해경 3010함이 온누리호에 접근하는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을 차단하고 온누리호를 보호하기 위한 경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고무보트에 승선한 중국인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온누리호 함미에 붙어 조사장비 투하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온누리호로부터 상황 전파 보고를 받고도 사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뒤에 해경에서는 경계함정 두 척이 우발사태를 대비해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확인을 해 보니까 해경 함정 두 척은 무려 100여 km 떨어진 해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선 한 250여 척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었던 건데 100여 km 떨어져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상황이고. 특히 온누리호에서 3.7km 떨어져 있던 해경 함정에 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사건 발생 한 달쯤 지나서 중국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사안 자체는 전 정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면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해야 될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러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말씀드린 특수기동대 활용하지 않았고요.

다음이오.

그리고 군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 해역에 진입한 게 2023년에 360회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8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300회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미 후보자님께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셨지만 비례적인 대응을 포함해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일종의 관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호한 대응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인데, 무슨 관성이냐 하면 제가 1981년도에 해군 작전에 근무하는 중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매일 아침에 브리핑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중국 어선 몇 척이 우리 영해에 피항을 했습니다. 그때 라면 몇 상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잘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생각도 좀 바꾸고, 물론 동반자 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주권 사항에 관한 것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을 여러 관련 부처가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후보자님, 7월 7일인가 일본하고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7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이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쪽 의제 안전이 무산되고 일본이 수정안을 낸 것 그것을 통과시켜 버려서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한테 한국이 깨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나 외교부에서는 이것이 원칙을 고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일 간에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함도 문제는 2015년으로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때 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함께 만들어서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은 16년 전에 이걸 등재시켜 줄 때, 동의해 줄 때 일본이 조선인의 강제노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을 유네스코 유산위원회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해내라고 한 건데 일본에서 수정안을 내서 이걸 무산시킨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계속 우리가 천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아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러니까 그 회의 자체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유네스코에서 기회가 되면 다자적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후덕 위원 하여튼 이게 일본하고 표결을 하면 계속 깨져요. 외교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나 더 있는데 다음번 보충질의에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후보자님,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이재강 위원 외청으로 두고 있지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제도

적·행정적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후보자님, 국내 체류 재외동포란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리고 벌써 100만 명에 이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지금 중국 동포 약 66만 명, 고려인 동포가 약 11만 명, 미국 동포 5만 3000명, 기타 약 5만 명 해서 총 86만 명이 계십니다. 인구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단기간 내에, 다문화가족이 120만이 되거든요, 아주 유수한 수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랬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사할린 동포 토론회를 주최하고 또 재외동포법 등을 발의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사회 정착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법률·노동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국감 당시 본 위원은 국내 재외동포 지원단체와 관련한 질의를 나누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반 마련도 절실합니다.

국내 동포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이재강 위원** 실제로 윤석열 정권은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지만 정작 자국 내 동포를 정책 대상으로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진정 국내외 동포의 기댈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내 체류 동포 수용과 지원이 가지는 의의와 이들에 대한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교부장관으로서 동포 지원의 주무부처인 재외동포청의 정책적 자율성과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성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런 것을 제일 잘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외동포들이 언제든지 한국으로 귀환해서 경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함께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외동포청에 필요하면 적절한 조직을 신설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돌봐 드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강 위원** 제가 말씀한 게 그 점입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를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상욱 위원님 하시고 최혁진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오늘 장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같은 주제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턴 선언 관련된 질문, 대중 외교, 대러 외교,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장관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국민들께서 민감하게 보고 계신 문제가 미국 관세 문제입니다.

시간도 급하지 않습니까? 8월 1일이면 시행되고 그 전에 합의를 내든 아니면 진행 경로도 궁금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금 소고기, 쌀 문제까지 같이 연동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정말 외교부장관 되시면 미국 관세 문제를 책임지고 잘 해결해 갈 수 있겠다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정책 검증 부분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들을 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을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장관후보자님께서 오늘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못 보여 드린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질의드렸던 미국 관세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풀어 갈 건지 또 어떻게 진행 중인지 편하게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부처에서는 상호관세뿐이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여러 주력 산업의 품목별 관세를 완전한 철폐나 인하를 목표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종 관세 결과, 관세가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 이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사가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특히 에너지 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단순히 미국의 이 분야 리쇼어링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 고위급에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협상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큰 틀에서, 한미동맹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를 통과시켜 주시면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이런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관련 여러 부처들의 협의하에 지금 대책안도 만들고 있고, A안 B안 C안 해서 만들고 있고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님, 국제개발협력사업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ODA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23년 대비해서 한 2조 650억 원, 약 43%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물론 이 가운데는 김건희가 주도한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350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대략 전체 한 85%를 외교부·기재부가 나눠서 하고 있지요. 기재부가 유상을 하고 있고 외교부가 주로 무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유상과 무상의 전략적인 ODA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TF를 만들면서까지 했는데 외교부도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잘 못 했어요.

사실 장관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ODA를 지금 국제사회에서 칭송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산업화 지원으로 유상으로 가더라도 인적 자원 개발 같은 무상을 결합해서 성과를 내는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 따로 국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났는데 계속 이 관행대로 가면 과연 성공적인 국제 개발협력사업이 국제사회로부터 박수 받는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요.

이 부분도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1%가 채 안 됩니다. 한 0.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ODA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지니까 민관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관협력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민관협력사업도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산 캐파는 유지를 하겠고 질적인 변화를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외교부가 질적 변화들을 만들어 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80% 이상이 유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대기업 위주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례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여기 보면 한 2012년부터 했던 건데 사회적 기업 트리플래닛이라는 청년기업입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성과를 KOICA하고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조림이 됐으면 유상 같은 경우에도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 지원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렇게 전략적인 접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많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도 하도 답답해서 참여했던 부처 국장님들한테 왜 이렇게 외교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과 혁신에 미온적이나. 사실 오늘 제가 외교부 자존심을 좀 건드려서 송구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때 참여했던 타 부처 국장들 이야기가 외교부는 전 세계에 도망갈 곳이 많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에 미온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다가 찍히면 외국 어느

나라에 가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제가 어쨌든 외통위에 있는 동안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외교부의 적극성들을 계속 지켜보고 또 협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큰 변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어느 부처 직원이 ‘외교부가 해외로 도망을 간다’ 이런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재외공관이 바로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개혁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ODA 사업을 강화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각 부처 장관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고 예산도 따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ODA 분절화는 더 심화됩니다. 아이로닉(ironic)하게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저항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ODA를 통해서 해외로 더 많이 나가서 경험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그럴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차관님께서 아마 부처에 있으실 때인지 직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금기시해야 될 얘기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2020년 국방수권법, 미 국방수권법 안에 센스 오브 콩гр레스(Sense of Congress)라는 방식으로 의견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외교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뭘 위해서? 롱 코리안 워(Long Korean War)의, 69년 된 오래된 코리안 전쟁의 엔드(end)를 위해서 중요한 거 다라는 조항이 상원은 아닐지라도 하원의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다른 중요한 것들 때문에 빠진 거지 그러한 콘셉트 자체에 대한 동의가 철회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도 그 같은 가치를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다. 이것 한국에 그냥 디아스포라만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폐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리우는 글로리아 스타이너라든지 그다음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여성들의 모임, 노벨 이니셔티브의 조디 월리엄스 같은 분들이,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성들이 이루어 냈던 일인데 결국은 미 의회가 한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종 국방수권법에 상하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담겼는지 아닌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확인한 적이 있다는 점, 터부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소회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AVI·CEPI 글로벌펀드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외교부는 이런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 이사회 참여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건 단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문성 부재에 전략 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GAVI 같은 경우는 백신조달시장에 굉장히 유효한 것이기도 하고 또 CEPI는 GAVI는 저희가 K-방역이라고 일컫는 COVAX 시스템, 그러니까 정의로운 백신 공급 시스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을 때 핵심이 됐던 기관들이거든요. 특히 CEPI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혁신 바이오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전략적 산업 파트너인데 국내 기업, 예를 들면 SK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처 간의 소통 미흡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장이 대한민국 백신 개발하는 데 전력 쏟겠다라고 밝힌 반면에 국제기구 협력 예산은 외교부에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의 중요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기업과의 연관성, 혁신 바이오 기업에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 단순한 기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얼마나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부처로 옮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정확하게 갖고 있고 필요성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간략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제가 퇴직하고 나서 2개의 NGO를 만드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 글로벌펀드입니다. 물론 제네바에 있는 글로벌펀드와 연계해서 한국의 그런 NGO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 제가 기꺼이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의 GAVI에 대한 지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1달러를 글로벌펀드에 지원하면 한국의 백신 기업들이 위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 모여진 자금으로 우리 기업의 백신을 사서 전 세계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5달러의 혜택을 본다 그런 것을 자료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서 제가 기꺼이 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어가게 되면 잘 살펴보고 GAVI에 대한 활동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CEPI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최근에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한번, 기여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침탈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최근에는 서해공정이라고 불리도 될 만큼 우리의 수역에 대해서, 서해에 대해서 침탈하려는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용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안철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서해 해양구조물 건설하는 것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도 또 걱정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더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 아마 CEEC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역에 설치되는 365MW급 해상풍력 EPC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계약 규모가 약 한 2조 원 된다고 하면서 공식 발표했다는데……

EPC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설계·조달·시공, 말하자면 텐키 베이스의 거의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 영해 내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의 어떤 시설물 이런 것이, 중국에서 기획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우리 영토 그리고 안전, 보안 문제가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휴전선 인근 전방부대에 설치돼 있던 CCTV 1300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서 다 철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올해 5월 달에 로이터통신이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미확인 통신장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고, 지난주입니다. 7월 11일에는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미국령 팜과 타이완 동쪽 인근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해역에서 해저지형 스캔 등 탐사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PPT 띄워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해상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시설에 중국이 들어와서 EPC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온갖 민감한 센서들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통신장비 이런 것도 다 설치하게 될 터이고, 설치 전에는 해저지형을 다 조사하게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어떤 선박이 지나가고 어떤 항로가 돼 있는지 볼 텐데 우리나라의 항공기 정보 노출, 해저지형 정보 노출, 잠수함 위치 노출, 방공 레이더망 무력화 그리고 실시간 도·감청 이런 문제들이 다 걱정이 됩니다. 고정밀 센서를 설치할 테니까요. 특히 백도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들여다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WTO, GATT 20조에 의하면 안보를 근거로 하는 것은 일반적 예외조항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역사상 있었던 많은 침략이나 이런 것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동북아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EC와 같은 그런 역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에 브뤼셀에 첫 부임을 했는데 그때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전쟁이 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피침략국이 되었는데 결국은 EEC 프로세스를 통해서 안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하더라도 이게 중부독일의 새로운 건설이 아니라 EEC 시장이 동부로, 동쪽으로 조금 확대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 왔고 이것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고 그 논문의 발췌문을 제가 자료로 전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협력 파트의 동북아에 관해서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중국과 척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나라기 때문에 협력 파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동안 중국은 온갖 통신장비 그리고 전자장비, 심지어 미국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에도 자기들이 CCTV를 설치해서 모든 정보를 다 빼 갔다고 할 만큼 굉장히 안보 면에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역에다가 자기들의 온갖 센서를 다 설치해 놓고 그걸 다 중국으로 전송해 간다 그러면 우리 선박, 잠수함, 모든 통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후보자님, 외교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ODA 포함하면 2조가 좀 되고.....

○**차지호 위원** ODA가 2조 8000억 정도 된다는데.....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외교부 것까지 다 하면 3조, 그리고 저희 순수 예산은 1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면 외교부의 순수 예산은 1조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께서 슬라이드 보여 주셨듯이 ODA, 직접 유상으로 하는..... 아니, 무상 ODA는 2조 9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약 3조가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차지호 위원** 그러면 저는 국민의 세금이 사실 ODA로, 외교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ODA로 다 갔는데 그러면 ODA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이쪽 국제개발이나 인도주의 영역에서 일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KOICA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실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면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과연 국내에서 사용이 됐으면 이렇게 사용이 되게 둘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돼요. 그래서 좀 가난한 지역에 우리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그대로 효과가 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 그게 실제 도움이 될까.

이게 단적인 예로 2조 8000억보다는 조금 작지만 아마 국경없는의사회가 그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엊비슷할 것 같은데, 국경없는의사회가 이런 ODA나 아니면 그런 인도주의 활동을 했을 때 결국 결과는 그쪽에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안 죽게 만들고 그리고 덜 아프게 만들고 고통 속에서 좀 낫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망률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을까, KOICA가 2조 9000억을 투여하면서. 그러면 이 2조 9000억을 우리 캐시 트랜스퍼(cash transfer) 프로그램에다가 돈을 그냥 그쪽에 있는 조금 취약한 그룹에 우리 기본소득처럼 재난 시에 나눠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KOICA에서 이렇게 많은 자원들과 인력들이 동원되어서 혹은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일들이 과연 실제 사망률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같은 예산으로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건의 진료를 하고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가 한 200만 건 정도 되고 그리고 홍역 관련된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한 300만 건,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OICA가 하는 2조 9000억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볼 때 이 프로젝트가 과연 그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문해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전문성을 가장 동원해서 살펴봐도 이것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디자인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대해서 결국 2조 9000억이라는 우리 세금이 쓰이고 그리고 외교부의 상당 부분 예산이 그렇게 쓰이게 됐을 때 이 무상원조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외교부장관님이 되시면 이 ODA 프로그램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실 거예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과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우리가 자기만족하라고 혹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쓰이게 되는지. 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3조에 가까운 이 많은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지는 모니터링 영역 바깥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대책들을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ODA 사업을 시작할 때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 재외공관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이나 또는 어느 부처가 어느 개도국에 가서 임의로 사업을 다 추진해 버리고 나중에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외공관이 이런 모든 일의 제일 중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내고 또 평가를 해서 본부에……

○차지호 위원 장관님, 재외공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외교관들이 똑같이 관련된 사업을 하면 효과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것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외교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전문가나 이런 KOICA에서 파견하는 KOICA 요원이나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외국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에도 소개됐듯이 심지어는 이런 구호요원이 들어가는데 경호요원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까지 낭비됐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이런 면에서는 건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제 정세를 보면서 세계 어디도 전쟁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실용외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가자 전쟁,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핵잠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대선은 아니지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협력을 지속해서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할 때 당시 스트래퍼드 국무부 원자력과장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였나 하면 이 협정은, 한미 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분명히 한 얘기가 예를 들어 핵잠수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한미 간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된다 하고 스트래퍼드 과장이 분명하게 저희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 가서 옛날부터 만나던 비핵산론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우리가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핵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커스(AUKUS)를 하면서 미국이 안심하고 다른 나라에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래서 상당히 안심하고 핵 확산의 염려를 하지 않고 동맹국들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미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정을 하는 것이고 그 협정 협상은 아마 우리 외교부의 원자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첫 번째 우리 수석대표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도 작년, 재작년 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여러 지인들과 만났을 때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가 오커스 2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미국과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 위원님의 경험과 지혜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 여권 무효화 조치 공문이 검찰로부터 외교부로 발송되었다라고 났거든요. 내용은 그 집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치별법상의 배임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달 초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그리고요. 본인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답도 안 했고 출국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거든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구속영장을 할 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아마 그런 걸 텐데 이것은 현지 외교부 공관을 통해서 베트남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쟁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APEC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지난 11일 날 김민석 총리가 경주를 찾아서 우리 APEC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

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한테 SNS를 통해서 ‘잘 챙겨 달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이번 APEC이 총리 표현에 의하면 K-APEC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7월 초에, 지난번 외교부2차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문화공연 등의 초안 제출이 7월 초에 되고 재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도대체 콘셉트가 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 민간자문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난 6개월간 거의 방치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K-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한자리에 오는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그 정상들에게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지, 어떻게 점검하실지, 민간의 역량과 국회와는 어떻게 협업을 하실지 그 부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길지는 않지만 서둘러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콘셉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정말 훌륭한 K-APEC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서 성공적인 APEC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마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아시겠지만 야당입니다.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상 문제도 다 해소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이 난관을 헤쳐 가는 결기라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상 문제는 사과하면 되지만 소신 문제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사청문회 야당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앞으로 잘하겠다 또는 타협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몇몇 부분은 제 가슴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주적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야당 위원님들 좋아하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좋아하시는 NATO 한번 볼까요?

NATO가 주적 개념 씹니까, 안 씹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안 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지금 동맹이라 그러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는 파견하지 않지만 러시아를 향해서는 직접적 위협이라 그랬고 중국에 대해서는 체계적 도전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적 부분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가 틀려서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핵추진잠수함도요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의 잠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핵추진이 된다는 뜻은 뭐냐? 그리고 미국이 좋은 말 하는 게 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재래식으로도 3면 바다 지키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 말은 전략적……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한국을…… 그래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지키시겠다길래. 왜냐하면 이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최근에 주한 연합사령관 브런슨이 우리가 중국 앞에 놓여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항모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침몰하지 않는 항모라고 얘기했고 중국을 대응하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것을 가리는 말이 포괄적 전략동맹이고 윤석열 때는 이것을 아예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현안 질문에 많이 나오시겠지만 저는 관세나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고 우리가 주변의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기를 조금 더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지적하신 것들을 제가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드리면, 23년 5월에 서울대 객원교수 하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평가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에 종속적인 외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쓰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종속적인 외교. 종속적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논거나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고 말하자면 뭐랄까요, 사례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두 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마음을 해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대통령 방미 시에 미국도 어떤 것을 더 준비해서 한국한테 주어야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까 고

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청은 없고 그냥 받기만 했다. 실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안을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정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국가에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처럼 표현이 뭐 마음을 해아려야 된다라든가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된다나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국에 대해서?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표현과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종속적인 외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좀 과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 당시에 저는……

○**김기웅 위원** 물론 밖에 계셨으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다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후보자님께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또 미 측에서 상당히 후보자님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후보자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잘 믿지를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관세협상을 비롯한 통상 또 안보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도 협상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2019년에 한 정당의 토론회에 강연을 가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자발적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다. 할렘에서 태어난 흑인 상당수는 총 맞아 죽는다.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경제정책도 시장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미 측에서 알게 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수장이신데 아무래도 미 측에서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는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고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반면에 유럽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한국의 경우 이 2개를 잘 비교하고 경제·사회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해 나가야 된다, 미국은 사실은 저것 있지만 끊임없는 이민 유입 그리고 새로운 두뇌 유입으로 번성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사실은 미국인들과도 디베이트하면서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저기만 딱 잘라서 놓고 보니까 저도 ‘아,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하고 후회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해……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끌으로 재산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출하신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아드님이 소유한 타워맨션의 약 11억 원의 전세임차권을 보유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꼼수 위장전입, 바꿔 살기 아니냐, 아니면 심지어 일각에서는 불법 중여하려고 그러신 것 아니냐 그런 의문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저희 아들이 미국에 정착한 상당히 고연봉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엔에 막 도착했을 때 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려고 한다’.

제 아들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군복무도 스스로 해병대 장교로 자원을 해 가지고 백령도 최전방에서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저희 아파트 근처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삼성의 해외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파트가 전부 전세기간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저희 집에 한참 있다가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때 귀국하게 돼서 몇 달 동안 함께 살다가 또 이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가 이리로 옮겨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그 집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일정 금액을 빌려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벌써 그 당시에 오륙 배의 봉급을 받는 변호사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자간의 대여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중여세를 다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게 된 것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약서를 맺고 저희 며느리 구좌로 매월 자동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인들, 기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빌렸다고 했다가 중여했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도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틀린 얘기를 한 것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사실은 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지어는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매우 엄하게 따져서 묻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을 한 뒤에 제가 감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사관은 외교부의 커리어 디플로맷(career diplomat)이 아닙니다.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이 보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덕담 하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일본인을 이해하려고 내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하나 읽어 봤어요. 그 책 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게 루스 베네딕트라는 여성 문화인류학자가 쓴 그런 책이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가야 되는데—국정감사 하느라고—인도를 잘 모르니까, 대사 시절에 ‘인도 리포트’ 이런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걸 가면서 비행기에서 한 반쯤 읽었어요. 인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엄청난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걸 이 책에 다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사 하면서도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새 정부의 장관으로 나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할게요.

(웃음소리)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아까 제가 ODA 말씀드린 것은 하여간 당시 제 경험이 외교부는 ‘기재부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기재부는 ‘외교부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두 부처를 같이 만났더니 ‘국조실이 조정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국조실을 만났더니 ‘우리는 조정 권한은 없고 권고 권한만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그런데 예산이 6조가 넘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장관이 되시면 꼭 어쨌든지 간에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00만이 넘었고요. 그중에 추정 재외선거권자가 197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지금 등재돼 있는 투표권자가 25만 정도인데 등록률이 한 7.9%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이 79.5%였으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아요.

재외동포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정치적 참여도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어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소투표제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결국은 외교부에서 대책이 올라와야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에서는 어쨌든 재외동포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23년에 개청을 했고 최근에 보니까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이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최혁진 위원 저야 비례고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협력센터를 각 지역들이 지방소멸 문제 때문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 지방

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공공기관이, 저도 보면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주변의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도 내고 또 교포들이 오셨을 때 주변의 국가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각 지역과 협의를 외교부에서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가능하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직원들이 사퇴를하거나 퇴직을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저는 윤석열 한마디에 짹 없어져 버린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담금 정비해라’라는 얘기 떨어지자마자 국회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질퇴기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에 따르라는 식으로 관련된 법안 폐지 법안을 외교부에서 냅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처의 통법부냐’ 하고 외통 위원님들 모두 반대했지만 이 법안이 왜 통과됐느냐?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아니요. 지난 예산,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던 당시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 이용객에 감염병 전파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해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윤석열 말 한마디에 ‘관련성이 미약하다’라고 바뀝니다.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감염병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약한 고리가 더 약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성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기금은 유엔 권고에 따라서 탄생한 최초의 혁신 개발재원이에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약속에 따라서 공자금까지 투입해서 유지된 기금이거든요. 제가 이것 다시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행정비용 많이 듣다고 외교부 얘기하는데 그간 운영했던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2017년부터 법 제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용됐고 3년 차인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이 전례 없는 외부충격 때문에 기금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보통 기금이 만들어지면 10년 이상 장기 운용을 해서 어쨌든 성과를 지켜보는 게 통상인데, 안정화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고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까 다시 부활해서 기준 방식대로 하면 연 400억 정도 수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예전과 다르게 3분의 1 정도 유보금을 보유하면서 기금 수입하고 이자 수입으로, 그러니까 투자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른 기금 운용처럼 5% 수익 정도 낸다고 봤을 때 안정적 운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름의 전략도 마련돼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되는 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국제기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국제 NGO들을 만났을 때 하나같이 질퇴기금 폐지에 대한 질문을 받느라고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시작해서 2004년에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어렵게 재경부를 설득해 가지고 항공권을 우리가 구입할 때 1달러씩 더 받아서 그것으로 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외교부로 가게 되면 재경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질병퇴치기금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후보자님, 전 세계에 같은 민족이 남북 이런 형태로 분단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더 있습니까? 대한민국 외에 분단된 나라가 있느냐고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없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형태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 예멘 또는……

○김기현 위원 그것은 분단된 나라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나라를 나눈 거고.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통일은 됐는데 그렇고……

○김기현 위원 강대국에 의해서 사실은 분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강제로 이산가족이 된 거고.

그리고 그쪽의 한쪽 진영은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 남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었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나라는 살렸지만 여전히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실존하는 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북한은 그와 달리 매우 특이한 관계이다, 우리하고는. 그래서 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처럼 이렇게 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딱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적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에서 중국과 사이에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주한미군이 거기에 무기나 물자나 인력이, 병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협,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사실은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아까 답변을 드렸던, 한국으로서는 중국뿐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김기현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요. 지금 미국의 가장 핵심 이익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 핵심 기지 중의 하나를 대만으로 꽂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만에 현실적인 위협을 지금 중국이 가하고 있고,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만약 요구하게 되면 미국은 그러면 주한미군을 자기들이 알아서 빼내서 재량 운용하겠다 그리고 대만에도 투입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현 위원 그렇지요.

PPT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설부른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안전보장에서도 위험하다 이런 건데, 전작권을 만약 전환하게 되면 군복무를 지금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5조 원 정도의 추가 국방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가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이 혼돈 속에 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잘 검토해서 NSC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결탁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첨단 군사기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리스트,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갔을 때 보면 다 아는데 그중에서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는 ‘북한이 핵잠수함을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력은 핵잠수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미국하고 러시아는 2차대전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동맹국이지만 냉전을 거치면서 적대적 관계로 된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하는 NATO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를 적이라고 표현하고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사가 그런 것인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인니까 지금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군사적으로는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적의 상황이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이것을 평화체제로 바꿔 가는 것인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평화체제가 오기도 전에 선불리 북한이 이미 적이 아닌 그냥 위협에 불과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조약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미국을 원조하도록 하는 것이 조약상 우리의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장관님, 제 이해가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건 해석에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니,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국내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너무 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조약을 국내법으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후보자님, 저는 지난번에 해외공관에 갔을 때 잠깐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조금 논의하다가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선 코로나 시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해외공관의 영사 업무라든지 이런 데가 확 줄어들면서 그때 인원 구조조정을, 정원 구조조정이지요. 그것을 하면서 해외공관들이 들쭉날쭉 되어 있어서 지금 현실로 돌아보면 차이가 나는 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과 관련돼서 업무량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고 빨리 좀 보충될 건 보충되고 조정될 건 조정되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 통상 협상하면서, 아까 제가 조직 전문성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절대적인 인력의 양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실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부의 현재 인력,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이번에 새 정부가 전체적인 업무 설계를 새로 하고 있고 경제안보라는 영역에 대한 업무 재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아주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외교관 수에 비해서 공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을 줄이든지 아니면 외교관 수를 늘리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개의 공관이 5인 이하의 공관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공관 또 설치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관에서는 우리가 자구노력으로서 대사를 파견하기보다는 대사대리를 보내서, 예를 들어 대사를 파견하게 되면 관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인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노력도 해 가지고 공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또 네 분, 다섯 분,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질의를 총 둥뚱그려 가지고 5분 내에 다 끝내고 마지막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재강 위원** 3분씩 하는 대로 마칩니다. 뭔 5분씩 더 줍니까?

○**위원장 김석기** 간사 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을 조금 왜곡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현재의 전쟁은 러시아, 과거에는 동맹이었지만 현재의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입니다. 최소한 대리전쟁입니다. 미국의 무기가 가고 있고요, 훈련을 위해서 병사가 일부도 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중국은요? 과거를 얘기하면 중국이 전쟁 상대였고 지금 얘기하면 러시아가 전쟁 상대인데 왜 거기서 또 중국은 빼십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표적으로 태평양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한국이 마치 태평양에 문제가…… 포괄적으로 태평양 방위에 한미가 협력한다는 조항을 미국의 합법적 영토가 아닌 쪽에서도 태평양에 위기가 있으면, 이게 대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만약 이걸 확대해석하면 APEC에 있는 국가들의 전쟁에 우리가 다 나가야 됩니다. 다 태평양이고, 서태평양 아닙니다. 태평양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잘못된 확대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영토, 하와이를 포함해서 본토부터 미국이 합법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당연히 파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지만 대만이나 다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마지막이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웅 위원 아마 취임하시고 나면 한 5개월여 있다가 올해 말, 내년 1월쯤에 장관님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NSC에 안건을 보고하러 가겠지요. 그래서 이 안건 내용이 26년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대처 방향이 됐든지 대책이 됐든지 이렇게 하실 텐데. 가면 대부분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불참 내지 기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세 가지 정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우리가 이런 데 공동 제안하거나 찬성하면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것 해 가지고 개들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 하나.

두 번째가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주민 인권 개선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뭐 하려 이것 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의견이 ‘역대 우리 진보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늘 이것은 불참 내지 기권해 온 것인데 당연히 이번 정부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불참 내지 기권을 해야지 태도를 바꾸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다른 분야도 있지만 우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남북기본합의서 때부터 목합지뢰 때까지 삼백 번이 넘는 협상을 해 봤는데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휘둘리면 실제로 어떠한 협상이나 건설적 의미가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늘 끌려다녀야 되고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돼서 지킬 것은 지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 있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인권결의안 참여와 회담 문제는 한번 여기 가셔서 나중에 역대 정부의 매번 있었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 남북회담 현황을 표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불참을 했든 기권을 했든 찬성을 했든 실제로는 남북대화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제일 나빴느냐. 2019년에 공동체안 불참한 때부터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다 끊어집니다. 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찬성했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됐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상관성도 없는데 마치 저쪽이 저러니 저래 그냥 아이고, 이랬다가 저거……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요 기분 나쁘면 대화에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합의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합의하는 겁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필요하니까 대화에 나오고 합의를 하지 기분 좋으니까 나오고 기분 좋으니까 합의해 주고 이것 아니거든요. 거기도 나름 체제인데 그 체제가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둘째는 외교관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가 각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의를 낼 때는 국제사회에서 그게 의미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아프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프지 않으면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면 그들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라고요, 표는 안 나지만. 그렇다면 그게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말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용외교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우리 지금 G7에도 참여하고 10대 대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결과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후보자님 모두발언하실 때 보니까 2010년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 수석대표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지금은 관세협상이 최대 이슈로 돼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최근에 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 100억 달러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외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라든지 전작권이라든지 이런 안보 관련해서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본투비 사업가이기 때문에 거래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거래적 접근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미국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 협상을 할 때 대전의 우리 원자력계에서 거의 사활을 걸고 저에게 부탁한 것이 파이로프로세싱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공동연구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추진한다면 군사적 디멘션(dimension)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적 그리고 환경 문제들을 들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것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한미 합의하에, 협의하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려면 한미 고위급 협의체인가요 이게 가동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2차 회의를 제가 가서 했는데 그때 제삼국 공동진출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 폐기 협력, 기술적 협력 등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린 것이 지적재산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수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적재산권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입장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삼국 공동진출이라든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특히 SMR의 고순도저농축 원료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SMR에서 중요한 HALEU(고순도저농축우라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일찌감치 다시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동맹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보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또 어떤 때는 아픈 구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여부가 우리 국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보자,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그렇습니다.

GDP처럼 지수를 만든다면, 벌너러빌러티(vulnerability) 취약지수를 만든다면 저는 우리가 가진 GDP의 순위보다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미국 측 생각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이 중국의 팽창,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 그러면 한일 간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는 외교 전략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의 국익에 손상이 온다는 입장을 미국은 그동안 계속 취해 왔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한일 간의 GSOMIA,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시지요.

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은 2019년 8월 달에 일어났던 일인데, GSOMIA 협정은 오랫동안 논란 끝에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되었고—한일 간의 GSOMIA입니다—그러다가 1년 뒤 2018년에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달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한일 간에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PT를 한번 보여 주시면,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GSOMIA를 종료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진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 1차 성명에는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기를 노력한다’. 그다음에 바로 국방부 2차 성명에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라는, 스트롱(strong)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실망했다(disappointment)’라고 썼고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동북아 안보 도전에 대한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라고 썼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한미 간의 신뢰에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 마이너스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시면, 그다음에 이게 사드 전자파 관련인데요.

왼쪽 사진은 2016년 8월 달인데 이게 성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민주당,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가서 거기에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지고 성주 참외가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 왜 저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때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장비들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경찰이 제대로 길을 터 주지 않아서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막사에, 제대로 된 설비가 안 된 컨테이너에 오랫동안 살았고 음식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 가지고 헬리콥터로 실어 날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예.

○김기현 위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리 없겠지요. 그렇지요? 거꾸로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중국과 2017년 사드 관련해서 3불 1한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 군사주권을 제약받는 건데 이걸 중국 외교부가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쉬쉬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저거 도대체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도 미국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우선 일본과 미래 협력관계를 잘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우리가 실용외교라는 기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도록 해서 미국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중일의 협력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반도에 진영 간의 폴트 라인(fault line), 단층이 생겨서는 우리 국익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에 플러스해서 한중일 협력도, 더군다나 이왕에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 우리가 FTA를 맺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일본과 FTA를 맺지 않은 채 먼저 한중 FTA를 맺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FTA 또 한일 FTA도 언젠가는 새롭게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북경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하고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가서 쑨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쑨웨이동 부부장이 전승절 기념식에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야 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반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조용히 타진을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거의,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승절 기념식에 초청했다는 걸 온 나라가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의도가 뭘까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을 때 한중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진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약한 고리구나 생각해서 우리한테, 후보자님이나 제가 잘 아는 그런 압력들을 막 가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또 다시 재발할까 봐 제가 이번에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기대치 높이지 마라.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되고 한중관계를 훨씬 강력하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전달하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김 위원님이 그런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총체적 외교 그리고 초당적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과거에 후보자가 NATO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야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의 일원이었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유럽의 안보하고 아시아의 안보가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게 NATO 정상회의에 IP4 국가들을, 인도·태평양의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초청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NATO 플러스 IP4 정상회담이 자리 잡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정상, 호주 정상도 가지 않았지만 아마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 NATO·IP4에 대해서 과거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ATO·IP4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가셔서 이 NATO·IP4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NATO와의 협력은 분명히 방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NATO와의 협력은 분명히 또 그 역할과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ATO의 5조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도 없고 적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냉전 시기 핀란드의 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냉전 시기 핀란드가 그러했다. 핀란드화를 조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결국 옛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러시아와 주변국 간의 갈등이 강화되면 그러면 계속 핀란드 같은 외교정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여지는 사례라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잘 알겠습니다. 한국은 핀란드처럼 핀란디제이션(Finlandization)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략적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조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귀중한 고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제 나름대로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외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제안과 조언을 겸허히 가슴에 새기고 신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오늘 조현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산회를 한 후에 위원장과 양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상욱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유용원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최혁진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출석 공직후보자**

조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감사관 유영

조정기획관 문인석

인사기획관 황소진

북미국장 홍지표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